

#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윤윤규·성재민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4
제2장 저임금 고용의 특성 및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 ....	8
제1절 저임금 고용의 특성 .....	8
제2절 근로소득 지위별 이동 .....	20
제3절 저소득 탈출 분석 .....	34
제4절 소 결 .....	39
제3장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	42
제1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기초통계 .....	43
1. 분석자료의 구성 .....	43
2. 기초통계 .....	45
제2절 저임금 고용의 일자리 이행확률 .....	49
제3절 근로자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 .....	55
1. 인적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 .....	55
2. 기업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 .....	58
제4절 일자리 이행과정 및 주요 변수의 변화 .....	60

제5절 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	64
제6절 미취업 및 취업 탈출확률 분석 .....	68
1. 미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	69
2. 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	73
제7절 소 결 .....	76
제4장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	78
제1절 연령계층별 연도간 임금지위의 변화 .....	79
1. 연령계층별 저임금 고용의 특성: 기초통계 .....	79
2. 연령계층별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의 변화 .....	81
제2절 연령계층별 저임금 고용의 일자리 이행확률 .....	91
제3절 연령계층별 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	95
제4절 연령계층별 취업·미취업 탈출확률 분석 .....	100
1.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	100
2.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	103
제5절 소 결 .....	10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09
참고문헌 .....	114

## 표 목 차

<표 2- 1> 종사상 지위별 이동 .....	9
<표 2- 2> 저임금 상한—중위소득 2/3 .....	11
<표 2- 3>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 .....	12
<표 2- 4> 세전 월평균 임금 기준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 .....	12
<표 2- 5> 6차년도 근로소득 지위별 지속적 근로활동자 비중 .....	13
<표 2- 6> 연간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지위별 연간 평균 근로일수 .....	14
<표 2- 7> 근로소득 지위에 따른 특성별 비중 .....	15
<표 2- 8> 특성별 근로소득 지위 비중 .....	17
<표 2- 9> 7차년도 이후 저소득 경험빈도별 비중 .....	18
<표 2-10> ordered logit을 이용한 저소득 경험 분석 .....	19
<표 2-11>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 (실업·비경황 포함) .....	21
<표 2-12> 세전 월평균 임금 기준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 (실업·비경황 포함) .....	22
<표 2-13>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 (실업·비경황 포함) .....	23
<표 2-14> 세전 월평균 임금 기준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 (실업·비경황 포함) .....	24
<표 2-15>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 .....	25
<표 2-16> 직장변화 여부별 2003→2004년간 소득지위 이동 (연간근로소득) .....	27
<표 2-17>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 .....	27
<표 2-18> 직장변화 여부별 2004→2005년 소득지위 이동 (월평균 임금) .....	28
<표 2-19>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 .....	29

<표 2-20> 직장변화 여부별 2003→2005년 소득지위 이동 (연간근로소득) .....	30
<표 2-21>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 .....	31
<표 2-22> 직장변화 여부별 2003→2005년간 소득지위 이동 (월평균 임금) .....	31
<표 2-23>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3년간 소득지위 이동 .....	32
<표 2-24>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3년간 소득지위 이동 .....	33
<표 2-25>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4년간 소득지위 이동 .....	33
<표 2-26>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4년간 소득지위 이동 .....	34
<표 2-27>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5년간 소득지위 이동 .....	34
<표 2-28>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저임금 탈출(2003→2007년) .....	36
<표 2-29>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저임금 탈출: 프로빗 분석 .....	39
<표 3- 1> 연도별 저임금(명목 기준)의 상한 기준(중위임금×2/3) .....	44
<표 3- 2> KLIPS 직업력 자료의 기초통계 .....	46
<표 3- 3> 근로자특성별 저임금 여부 분포(첫째 일자리 기준) .....	48
<표 3- 4>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1998~2008): 첫째 일자리 저임금 .....	50
<표 3- 5>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1998~2008):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	53
<표 3- 6>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 시기간 비교 .....	54
<표 3- 7> 비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 시기간 비교 .....	55
<표 3- 8> 근로자 인적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1998~2008) .....	57
<표 3- 9> 기업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1998~2008) .....	59
<표 3-10> 일자리횟수 표본별 일자리 이행과정과 주요 변수의 변화(첫째 일자리 기준) .....	62
<표 3-11> 일자리횟수 표본별 일자리 이행과정과 주요 변수의 변화(둘째 일자리 기준) .....	63

<표 3-12>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전체 표본	65
<표 3-13>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66
<표 3-14>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전체 표본	67
<표 3-15>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68
<표 3-16> 미취업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1
<표 3-17> 취업 탈출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5
<표 4- 1> KLIPS 연령 구간별·특성별 기초통계: 1998년(1차년도 조사) 기준	80
<표 4- 2> 1998 ~ 1999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2
<표 4- 3> 2003 ~ 2004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3
<표 4- 4> 2007 ~ 2008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5
<표 4- 5> 1998 ~ 2000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6
<표 4- 6> 2003 ~ 2005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7
<표 4- 7> 1998 ~ 2001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8
<표 4- 8> 2003 ~ 2006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89
<표 4- 9>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의 이행 및 주요 변수의 변화	94
<표 4-10> 연령계층별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전체 일자리 이행 표본	96
<표 4-11> 연령계층별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이행 표본	97
<표 4-12> 연령계층별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전체 일자리 이행 표본 전체	98
<표 4-13> 연령계층별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이행 표본	99
<표 4-14>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Cox 헤저드모형	102

<표 4-15>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  
Cox 해저드모형 ..... 106



## 그림목차

[그림 3- 1]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함수 비교 .....	70
[그림 3- 2]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함수 비교 .....	73
[그림 4- 1]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의 이행확률 .....	92
[그림 4- 2]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저임금근로자 .....	101
[그림 4- 3]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비저임금근로자 .....	101
[그림 4- 4]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저임금근로자 .....	104
[그림 4- 5]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비저임금근로자 .....	104



## 요약

### ◆ 연구의 목적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저임금 고용이 특정집단에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인지, 또는 더 나은 임금을 위한 과도기적 징검다리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2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은 저임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의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 저임금 상태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징검다리가설(stepping stone hypothesis)은 저임금→고임금으로의 이동은 고용의 ‘자연스러운’ 경로이므로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을 통해 결국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동안 저임금 고용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분석 결과가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이행행위가 근로자의 소득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저임금근로자의 이행이 과연 장기실업 또는 저임금 고용의 고착화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및 제도 모색에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등이 핵심적 문제 의식으로 제기된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효율성·유연성 확보, 이를 통한 기업·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시스템의 정립, 취약계층 및 저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와 이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은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저임금 고용의 실태,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성과에서의 격차,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시스템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취약계층 및 저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를 통한 이행 성과에서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원활한 이행을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의 이동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이의 이행과정 및 확률, 취업·미취업 탈출확률, 일자리 이행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계층별로 일자리 이행과정 및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저임금 고용의 특성 및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

본 연구에서 저임금근로자는 OECD의 정의에 따라 중위임금(또는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임금(또는 소득) 미만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연도간(year-to-year), 즉 기준년도와 1년 이상 이후의 비교년도 사이에 관찰되는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을 살펴본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기간 동안 한 번의 예외 없이 계속 저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저소득 경험 후 1년 뒤, 저소득 경험 후 2년 뒤 등으로 시점간 소득지위 및 경제활동상태 이

동을 분석한 결과 시간 간격을 늘려도 저소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반복해서 저소득을 경험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같은 미취업상태로의 이동도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 경험자 중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상태만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미취업상태로 이동했다가 저소득으로 돌아오거나 바로 위 소득계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소득으로 떨어지는 등 반복적으로 저소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고소득자는 이전에도 고소득자였던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고, 일부만이 이전에 바로 아래의 소득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되며, 미취업상태에서 이동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근로일수를 비교해 보아도 고소득자는 거의 미취업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소득활동을 한 반면, 저소득자일수록 연간근로일수가 짧게 나타나 저소득자는 저소득-미취업을 반복해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이 저소득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는 저소득 탈출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젊을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보다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여성, 고연령자 같이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연간근로일수는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소득 탈출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일하는 사업체의 특성이 저소득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특성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비정규직 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고용에 있는지 같은 일자리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 저소득 탈출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넷째, 개인의 인적자본량이 저소득 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정규교육의 영향을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는데, 정규교육의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해 대졸 이상일 경우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직업훈련은 분석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 탈출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이나 전문대졸인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분석은 저소득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저임금자일수록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고임금자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일단 실업상태에 빠진다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지원 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동반되어야만 저임금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저임금(소득)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데,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훈련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저소득 탈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공식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고,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 전망이 좋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이나 장년 남성계층과는 달리 고령층이나 여성 등 일부 취약계층의 저임금 탈출은 분석 결과에서 보듯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체계 확충은 이상의 세 가지 노력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앞서 제2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도간 임금지위의 이동, 즉 어떤 연도에서의 임금지위가 다음 연도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인의 모든 일자리 이력정보를 포함하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일자리 기준에서의 이행, 즉 어떤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행과정, 저임금으로의 이행 결정요인, 취업·미취업상태 탈출확률의 결정요인 등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1998~2008) 동안 관찰되는 첫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63.1%가 계속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에 머무는 반면, 나머지 36.9%는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로 상향이동 한다. 첫째 및 둘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30.1%가 셋째 일자리에서 상향이동을 경험하여 저임금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저임금근로자가 일단 비저임금 상태로 상향이동을 하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며, 반대로 비저임금 상태에서 저임금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상태에 머물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임금근로자에 적합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는 비저임금이지만 저임금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은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향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및 숙련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저임금 상태로 빠질 위험성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여성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탈출(또는 비저임금 유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임금 이행에 대

한 멀티 에피소드(multi-episode) 분석의 결과 또한 첫 번째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층, 생산직종, 비상용직일수록 이직 이후 미취업상태를 거친 다음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이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수단들을 함께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인적자본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저임금 경험자,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경험자, 제조업 경험자일수록 미취업기간 동안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 탈출 확률이 낮아져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 탈출확률 측면에서는 저임금근로자, 저학력층,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기업, 무노조기업, 생산직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취업 이탈 위험이 높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취약집단별로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식별을 바탕으로 각각의 근로자집단이 직면하는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집단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제4장에서는 연령계층별로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 발생하는 이행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로, 특히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의 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근로자일수록 비저임금으로의 상향이동을 통해 저



임금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청년층 저임금근로자가 다음 일자리에서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은 중장년층과 고령층보다도 상당히 높다. 연도간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저임금 탈출확률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낮은 연령이나 숙련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에서 저임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청년기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을 벗어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성격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층 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줄임으로써 원활한 일자리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를 거쳐 임금이 상승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청년층들이 여전히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공히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이전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이행에서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을 식별·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중장년층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으며, 청년층과 고령층 저임금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짧은(긴) 미취업기간에서는 청년층(고령층)이 보다 쉽게 미취업상태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Cox 해저드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미취업 직전의 일자리가 저임금이었던 근로자일수록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나, 저임금 여부가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미취업 직전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라는 사실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도 저임금으로 귀결되는 소위 경로의존성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한다.

넷째,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청년층의 취업 탈출확률은 타 연령층보다 뚜렷이 높는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풍부한데다 이직성향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ox 해저드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여부가 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저임금일수록 일자리를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나, 미취업 탈출 분석과는 반대로 청년층의 경우 그 효과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동시장 이행은 경제적·기술적·문화적·인구학적 추세 및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빈번해지고 이행의 성격 또한 질적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Schmid, 2000).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노동의 내용과 형태가 보다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인들 또한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설계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자발적 선택에 따라 다양한 노동력 상태 사이에 이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화, 개인적 욕구 및 필요성을 중시하는 흐름의 확산 등 경제사회적 흐름의 복합적 결과로 개인들은 과거에 비해 빈번한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하고 이행의 유형 또한 기존의 표준적 이행경로를 넘어서 다양화되고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이행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공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성과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자발적 이직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위험이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저숙련 또

## 2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이 차단되어 '실업→저임금 일자리→실업→저임금 일자리'라는 이행과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가 근로경력을 개인 생활과 일치시키려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강조된다. 그러나 점증하는 노동시장 이행은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한다(Schmid, 2000). 즉 이행에 따른 일시적인 근로경력 단절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보다 나은 상태로의 상향이동이 아니라 나쁜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근로자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점증하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개인 간에는 인적자본만이 아니라 이행숙련(transitional skills)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모두가 잘 짜인 생애설계에 필요한 지적·사회적 숙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Giddens, 1991).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집단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인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이행숙련 또한 낮다(Bourdieu, 1986). 특히 취약계층의 이행은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져 결국 반복실업 또는 장기실업에 빠지거나 저임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향이동 함정(downward spiral)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근로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근로 상태로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며, 특히 배제적 이행의 위험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이행촉진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저임금 고용이 특정집단에 있어서 장기 간 지속되는 현상인지, 또는 더 나은 임금을 위한 과도기적 징검다리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2가지 상반된 가설이 제시된다.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은 저임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의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 저임금 상태가 고착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징검다리가설(stepping stone hypothesis)은 저임금→고임금으로의 이동은 고용의 ‘자연스러운’ 경로이므로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을 통해 결국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동안 실증분석 결과들이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으나 저임금 고용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해외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고용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실증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노동시장 이행행위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근로자들의 이행이 과연 장기실업 또는 저임금 고용의 고착화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장치 및 제도 모색에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등이 핵심적 문제 의식으로 제기된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효율성·유연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시스템의 정립, 취약계층 및 저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와 이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저임금 고용의 실태,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성과에서의 격차,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시스템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취약계층 및 저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를 통한 이행성과에서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원활한 이행을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의 이동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는 KLIPS

#### 4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이의 이행과정 및 확률, 취업·미취업 탈출확률, 일자리 이행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계층별로 일자리 이행 과정과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세계화의 빠른 진전과 노동시장 유연화 흐름의 강화, 이에 따른 고용형태의 불안정화와 빈번한 노동시장 이행 등으로 집약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임금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취약계층에 있어서 노동시장 이행은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보다는 실업 또는 비경황상태에 오래 머물게 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이라는 이행과정이 되풀이되는 소위 회전문 함정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Ramos-Diaz, 2005).

저임금 고용(low-wage employment)이 특정집단의 노동력에 있어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한 과도기적 징검다리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주제는 저임금근로자가 저임금 상태로부터 이탈했을 때, 어떠한 이행 패턴과 경로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이다. 저임금에서 이탈하는 근로자들은 상향이동이 아니라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를 경험한 후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임금을 벗어난다는 것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개선이 아니라 돌고 돌아도 제자리를 맴도는 회전문에 갇히게 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2가지 상반된 가설이 제시된다. 첫 번째 가설은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로서 저임금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이라는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히면서 저임금 상태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

은 징검다리가설(stepping stone hypothesis)로서 저임금에서 비저임금으로의 이동은 고용의 '자연스러운' 경로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동안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분석 결과가 하나의 일치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징검다리가설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합정가설에 부합하는 실증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징검다리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저임금 고용은 근로생애 발전과정에서 과도기적 경로로서 훈련과 경험 축적을 통해 고임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Sloane & Theodossiou(1996)는 영국의 경우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반대방향의 이행 가능성보다 큼을 제시한다. 저임금 고용의 위험과 관련한 연령의 효과를 고려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Dex, Robson & Wilkinson, 1999; Sloane & Theodossiou, 1998). 여기서는 저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층이 경험과 숙련을 쌓으면서 저임금 상태에서 쉽게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임금 고용이 고임금 고용으로 나아가는 이행과정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편, 지속합정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Stewart & Swaffield(1998)는 어떤 시점( $t$ )에서 저임금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전 시점( $t-1$ )에서 저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Keese, Puy-moyen & Swain(1998)은 1986~91년간 저임금 존속률을 국가 간에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저임금 존속률이 가장 높고 덴마크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86년 저임금을 받은 경우 1990년 저임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Contini, Filippi & Villosio 1998), 영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제시되었다(Stewart, 1999).

이러한 국가별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Asplund & Persson(2000)은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저임금 상태에서 고임금 상태로의 이동이 보다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은 저임금 고용이 장기간 계속될수록 저임금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고용의 초기단계에서는 이행을 통한 고용 상태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저임금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국내에서 저임금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며 연구 역사 또한 길지 않다.<sup>1)</sup> 홍경준(2004)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개인별 빈곤주기를 연구하였는데,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금재호(2006)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개인보다는 근로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빈곤탈출을 연구했는데, 가구주 연령, 학력과 빈곤의 관련성이 높으며, 임금근로가구보다 자영업 및 임금근로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음을 실증하였다.

석상훈(2008)은 함정/징검다리시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태의존성을 검증하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저임금근로는 상태의존효과를 가져 탈출하기 어려운 함정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윤진호·이시균(2009)의 연구도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을 분석하였는데, 저임금 고용의 결정에서 개인의 인적자본 요소 외에도 노동수요 측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동성과 관련하여서는 석상훈(2008)의 결과와 유사하게 저임금 고용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임금에서 탈출하기 힘들어지는 부(-)의 상태의존성을 확인하였다.

이병희(2010)는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빈곤층의 고용률은 비빈곤층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로능력자로 한정하여 연간 취업경험률을 비교하면 고용률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되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원인은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시간당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임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빈곤층은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하긴 하지만, 다시 빈곤으로 진입하는 반복빈곤 또한 현실에서 쉽게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 탈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함정은 아니지만,

1) 가구빈곤 이동연구와 저임금자 노동시장 이행은 같은 사람 또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패널조사가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패널 조사인 한국노동패널 조사가 1998년에야 첫 조사가 이루어져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누적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연구 지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저임금 탈출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주목한 국내 연구도 있다.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연구자들 가운데 대체로 합의되었다면,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일자리가 함정인지 징검다리인지 아직은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기존 국내 연구들은 청년층의 경우도 징검다리보다 함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쪽이다. 전용석·김준영(2003)은 청년패널(한국고용정보원 조사)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직장 이동횟수와 임금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 직장 이후 이직횟수가 3회 이상이면 재취업시 임금이 유의한 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직장이동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 나으나, 일자리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임금 탈출에 유리하다는 논쟁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첫 일자리의 임금이 나중 일자리의 임금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발견하였다.

반정호(2008)는 청년패널(한국고용정보원 조사)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청년층 저임금자의 경우 학력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중소기업에 근무할수록 저임금 지속가능성이 높음을 실증하였다. 일자리가 자주 바뀔수록, 여성일수록 저임금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 제 2 장

### 저임금 고용의 특성 및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

#### 제1절 저임금 고용의 특성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KLIPS에서 이용가능한 근로소득 변수는 2가지가 있다. 조사 시점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자영업자라면 월평균 소득)과 조사 시점 전년도에 번 연간근로소득 변수가 그것이다. KLIPS 개인자료에 두 변수가 모두 들어 있는데, 월평균 임금의 경우 조사 당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부터 받는 임금만 고려되는 한계가 있다.

본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일자리에서 얻는 임금소득이 아니라 그가 번 근로소득 총액이다. 대학강사, 건설인부처럼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중 하나의 일자리로부터 올린 소득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해당자의 저임금 특성을 연구할 때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는 해당자가 일 년 동안 번 근로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저임금(소득) 현상을 분석하려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생활이 가능한 임금 또는 근로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 이

를테면, Andersson et al.(2005)는 저임금 탈출을 연구할 때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의 단점은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 때때로 일하지만 일한 기간의 소득은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모든 분석이 그렇듯,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이 장에서는 연간근로소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는 일자리 단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도 초점은 연간근로소득에 있지만, 하나의 일자리로부터 얻은 소

<표 2-1> 종사상 지위별 이동

(단위: %)

		상용	임시	일용	자영/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005(8차년도 조사) 종사상 지위						
20047 차 년 도 조 사	상용	92.8	1.4	0.9	4.4	0.6	100.0	
	임시	20.6	70.4	1.5	7.2	0.3	100.0	
	일용	9.0	4.0	82.5	4.1	0.5	100.0	
	자영/고용주	2.0	0.5	0.7	96.6	0.2	100.0	
	무급가족종사자	3.2	0.0	1.2	2.5	93.1	100.0	
			2006(9차년도 조사)					
	상용	89.8	2.3	1.8	5.7	0.4	100.0	
	임시	32.1	58.3	3.7	5.7	0.3	100.0	
	일용	14.9	4.6	73.7	6.3	0.5	100.0	
	자영/고용주	5.1	0.9	1.5	91.6	0.9	100.0	
	무급가족종사자	5.5	0.6	1.6	5.5	86.9	100.0	
			2007(10차년도 조사)					
	상용	87.9	2.5	2.1	7.1	0.4	100.0	
	임시	40.3	46.8	4.2	8.0	0.7	100.0	
	일용	20.7	4.8	66.3	7.3	1.0	100.0	
	자영/고용주	7.2	1.5	1.8	88.6	0.9	100.0	
	무급가족종사자	7.8	2.3	0.9	6.2	82.7	100.0	
			2008(11차년도 조사)					
	상용	85.1	3.3	2.2	8.8	0.6	100.0	
	임시	45.9	35.0	5.9	11.9	1.3	100.0	
일용	20.2	5.7	61.5	11.0	1.6	100.0		
자영/고용주	9.5	2.4	1.7	85.7	0.7	100.0		
무급가족종사자	8.2	2.4	1.5	6.7	81.3	100.0		

10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득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합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도 포함된다. <표 2-1>은 종사상 지위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금↔비임금 이동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2004년에 상용직이었던 사람들 중 2005년 4.4%가 자영/고용주로 이동했고, 2006년에는 5.7%, 2007년 7.1%, 2008년 8.8%가 자영/고용주로 이동했다. 시간 간격을 보다 길게 할수록 이러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임시직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2005년 7.2%, 2006년 5.7%, 2007년 8.0%, 2008년 11.9%가 자영/고용주로 이동했다.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임금근로를 떠나 자영/고용주로 이동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자영/고용주로 이동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일부는 자영업 일자리와 임금근로 일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임금→저임금으로의 이동에만 분석 시야를 좁히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장에서의 분석은 자영업과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표 2-2>는 본 연구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을 정의할 때 활용한 중위임금 기준 2/3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으로부터 계산한 저임금 상한<sup>2)</sup>은 (가)에 67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11차년도(2008년)에는 1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7차년도부터는 (가)의 공제되는 세금액도 함께 조사된다. (나)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는 세후임금이므로 (나)는 세금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7차년도는 93만원, 11차년도에는 111만원으로 저임금 상한이 계산되었다.

(다)는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과 자영업자였던 사람을 모두

2) 정확히는 비저임금 하한이다. 통상 OECD 보고서에서 상대 저임금을 정의할 때 중위소득 2/3 미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표 2-2〉 저임금 상한-중위소득 2/3

(단위: 만원)

	임금근로자 기준(가)	(나) “가”에 세금 포함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다)	세전 연간근로 소득(라)
1차년도	67		64	
2차년도	60		67	
3차년도	67		67	
4차년도	67		67	
5차년도	73		80	
6차년도	80		87	1,020
7차년도	87	93	97	1,048
8차년도	98	100	100	1,120
9차년도	100	101	100	1,200
10차년도	100	103	103	1,224
11차년도	107	111	113	1,280

주: (가)는 조사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임금근로 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임금. (나)는 (가)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7차년도부터 조사. (다)는 조사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임금근로 및 자영/고용주 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임금(소득). (라)는 조사 전년도에 임금근로 또는 자영/고용주 일로 인해 발생한 총소득을 의미. 해당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합쳐 계산한 저소득 상한을 보여주고 있다. (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같은 액수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다소간 저소득 상한액이 증가하는 셈이므로 자영업자는 다소간 높은 소득 쪽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라)는 조사 전년도에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액수이다. 연간소득이므로 단위가 크다. 6차년도(2002년)부터 조사되었고, 11차년도(2007년) 현재 1,280만원이 저임금 상한액으로 계산되었다. 세전과 세후를 모두 조사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표 2-3>, <표 2-4>는 세전 연간근로소득과 월평균 임금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를 요약한다. 근로소득 지위별로 5개 범주를 구별하였는데, 빈곤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 소득을 버는 자를 의미한다. 저소득(임금)이란 중위소득(임금) 기준 2/3 미만 소득이다. 고소득(임금)은 중위소득(임금) 기준 3/2 이상 소득이다. <표 2-3>에서는 11차년도가 2007년, <표 2-4>에서는 11차년도가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세전

12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연간근로소득의 경우 조사 전년도 시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고, 월평균 임금의 경우 조사 당시 받고 있었던 임금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이다.

<표 2-3>에 따르면 빈곤층은 대략 20% 남짓한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저소득 미만에 속하는 층은 11% 남짓이다. 이 두 수치를 합하면 총 저소득자 비중이 되는데, 6차년도 32.2%, 11차년도에는 31.5%로 계산된다. 증가 또는 감소의 트렌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저소득자는 6차년도 67.8%, 11차년도에는 68.5%였다. 중위소득 기준 3/2 이상 버는 고임금층은 대략 30% 남짓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에서는 자영업 소득이 제외된 임금근로자만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를 계산해 놓았다. 빈곤층의 규모는 연간근로소득으로 볼 때에 비해 작고, 빈곤 이상~저임금 미만층의 규모는 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연간근로소득으로 볼 때보다 다소 많아 보인다. 전체

<표 2-3>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

(단위: %)

		6차년도 2002	7차년도 2003	8차년도 2004	9차년도 2005	10차년도 2006	11차년도 2007
저 소 득	빈곤	20.9	19.5	20.0	22.4	19.0	18.8
	빈곤~저소득 미만	11.3	10.7	10.9	8.0	12.9	12.7
비 저 소 득	저~중위소득 미만	17.7	19.2	18.4	19.0	17.5	17.8
	중위~고소득 미만	19.5	18.5	23.6	23.8	21.0	20.1
	고소득	30.6	32.1	27.1	26.9	29.6	30.6

<표 2-4> 세전 월평균 임금 기준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

(단위: %)

		7차년도 2004	8차년도 2005	9차년도 2006	10차년도 2007	11차년도 2008
저 임 금	빈곤	12.1	13.5	11.8	10.8	13.1
	빈곤~저임금 미만	14.5	10.7	14.8	14.2	12.7
비 저 임 금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22.9	24.3	22.6	23.6	22.9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26.5	27.3	25.0	23.8	22.5
	고임금	24.1	24.1	25.9	27.7	28.9

〈표 2-5〉 6차년도 근로소득 지위별 지속적 근로활동자 비중

(단위: %)

	6~11차 계속 근로소득 있었던 자의 비중	6~11차 계속 응답자 비중
빈곤(중위소득 50% 미만)	33.5	68.6
빈곤 이상 중위소득 2/3 미만	40.2	69.6
저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46.8	69.9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3/2 미만	56.1	71.8
고소득	63.1	73.3

주: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세전) 자료 이용.

적으로 저임금 전체의 규모는 연간근로소득으로 할 때보다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더 작다. 이는 빈곤층에 자영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고, 근로월수를 고려할 때 저소득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5>를 보면 저소득자일수록 한 해도 빠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사람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6차년도 기준 근로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중 6~11차 내내 연간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은 33.5%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6차년도에 근로빈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중 66.5%는 그 이후에 실업이나 비경황 등으로 머무르면서 한 해 이상 근로소득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반면 6차년도 기준 고소득층은 단 한 해도 빠지 않고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63.1%로 빈곤층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혹시 저임금일수록 조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 6차년도 근로소득 지위별로 계속 응답률을 3번째 열에서 보았다. 고소득일수록 계속 응답자 비중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어서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단속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표 2-6>에서는 이따금씩만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소득을 올린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 한 해도 빠짐없이 노동시장에 참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연간 근로소득(세전)을 기준으로 소득지위별 연간 평균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아도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일한 날짜 수도

14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표 2-6> 연간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지위별 연간 평균 근로일수

(단위: 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빈곤	272 (108.2)	268 (113.6)	264 (113.4)	248 (121.9)	270 (110.7)	256 (116.5)
빈곤 이상~저소득	332 (61.6)	330 (64.2)	339 (53.5)	330 (61.6)	340 (50.9)	337 (59.1)
저소득 이상~중위소득	343 (53.3)	345 (48.9)	347 (44.8)	346 (42.2)	345 (49.2)	345 (49.0)
중위소득 이상~고소득	353 (37.5)	354 (35.7)	354 (36.2)	356 (31.6)	357 (28.3)	357 (28.8)
고소득	360 (26.4)	360 (23.8)	361 (19.5)	363 (15.5)	363 (16.2)	363 (13.5)
전 체	335 (69.3)	335 (70.1)	336 (69.9)	330 (78.8)	338 (66.5)	336 (71.3)

주: 괄호는 표준편차.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토요일일요일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은 근로소득 지위에 따른 특성별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6차년도 기준 연간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들 중 62.8%는 남자, 37.2%는 여자였는데, 저소득층에는 여자가 훨씬 많은 59.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미만은 전체의 24.3%이지만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은 35.6%로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의 전체에서의 비중은 22.7%였지만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은 10.4%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로 보면 미혼과 이혼/사별은 전체 분포에 비해 저소득층 안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대로 기혼 유배우인 사람들은 비저소득층 안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60세 이상은 전체에 비해 저소득층 안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30대, 40대, 50대는 비저소득층에 더 많이 있었다.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은 29세 이하가 28.4%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은 도소매업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은 전체에서의 비중보다 비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도소매업은 전체에서의 비중보다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



〈표 2-7〉 근로소득 지위에 따른 특성별 비중

(단위: %)

		저소득	비저소득	전 체
성	남자	40.9	73.2	62.8
	여자	59.1	26.8	37.2
학력	무학	5.3	0.5	2.1
	고졸 미만	35.6	18.9	24.3
	고졸	29.8	36.0	34.0
	전문대재/대재학	10.4	3.6	5.8
	전문대졸	8.5	12.5	11.2
	대졸 이상	10.4	28.5	22.7
혼인	미혼	31.1	22.3	25.1
	기혼 유배우	57.6	74.1	68.8
	이혼/사별	11.3	3.7	6.1
연령	29세 이하	28.4	17.2	20.8
	30~39세	17.6	31.7	27.2
	40~49세	22.0	31.7	28.6
	50~59세	14.2	15.5	15.1
	60세 이상	17.8	3.9	8.3
업종	농림어업	11.2	2.9	5.2
	광공업/전기	19.5	23.0	22.0
	건설업	7.3	10.8	9.8
	도소매	24.0	20.4	21.4
	운수업	2.9	6.4	5.5
	통신업	1.2	1.8	1.6
	금융 보험업	3.1	4.9	4.4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10.4	8.2	8.8
	공공및 교육	8.4	12.2	11.1
	보건사회 복지	2.6	2.7	2.7
	오락방송 및 공연	1.1	2.2	1.9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8.4	4.4	5.5	
직종	고위/(준)전문가	16.1	30.0	26.1
	사무직원	9.9	14.4	13.2
	서비스/판매종사자	23.6	18.6	20.0
	농어업숙련근로자	11.1	2.9	5.2
	기능원	12.1	16.8	15.5
	조작원	9.5	12.2	11.5
	단순노무직	17.7	5.0	8.5
사업 체 규모	10인 미만	47.6	43.6	44.7
	10~29인	11.1	8.9	9.5
	30~99인	12.0	13.9	13.4
	100~299인	7.2	6.2	6.5
	300인 이상	22.0	27.5	26.0
고용 형태	정규직	66.7	84.6	79.6
	비정규직	33.3	15.4	20.4
전 체		100.0	100.0	100.0

주: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이 더 높았다.

직종별로는 고위직, 전문가와 준전문가, 사무직원, 기능원의 전체 대비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이 낮았고, 단순노무, 조직원, 서비스/판매종사자의 전체 대비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안에서의 비중만 보면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저소득층 안에서는 고위직, 전문가 및 준전문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역시 소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대비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전체 대비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은 특성별로 근로소득 지위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6차년도 기준 남자는 저소득층에 20.9%만이 있었던 반면, 여자는 51.1%가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무학의 83.8%가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고졸 미만은 47.1%, 고졸은 28.2%, 전문대졸은 24.4%, 대졸 이상은 14.7%가 저소득층에 있었다.

혼인상태로 보면 이혼/사별은 절반이 넘는 59.4%가 저소득층에 있었고, 기혼 유배우는 26.9%만이 저소득층에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절반이 넘는 68.7%가 저소득층에 있었으며, 29세 이하 집단도 43.9%가 저소득층에 있었다. 30대와 40대는 25% 미만만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운수업, 오락방송공연사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농업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높았고, 고위임직원, 전문가, 준전문가 집단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사무직과 기능원은 약 21%대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29인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0~299인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가장 저소득자 비중이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거의 절반(45.7%)이 저소득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근로소득 활동을 한 사람들만을 대

〈표 2-8〉 특성별 근로소득 지위 비중

(단위: %)

		저소득	비저소득	전 체
성	남자	20.9	79.1	100.0
	여자	51.1	48.9	100.0
학력	무학	83.8	16.2	100.0
	고졸 미만	47.1	52.9	100.0
	고졸	28.2	71.8	100.0
	전문대재/ 대재학	57.8	42.2	100.0
	전문대졸	24.4	75.6	100.0
	대졸 이상	14.7	85.3	100.0
혼인	미혼	39.8	60.2	100.0
	기혼 유배우	26.9	73.1	100.0
	이혼/사별	59.4	40.6	100.0
연령	29세 이하	43.9	56.1	100.0
	30~39세	20.8	79.2	100.0
	40~49세	24.7	75.3	100.0
	50~59세	30.3	69.7	100.0
	60세 이상	68.7	31.3	100.0
산업	농림어업	59.8	40.2	100.0
	광공업/전기	24.7	75.3	100.0
	건설업	20.7	79.3	100.0
	도소매	31.4	68.6	100.0
	운수업	15.1	84.9	100.0
	통신업	20.6	79.5	100.0
	금융 보험업	19.7	80.3	100.0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33.1	66.9	100.0
	공공및 교육	21.0	79.0	100.0
	보건사회 복지	26.9	73.1	100.0
	오락방송 및 공연	15.8	84.2	100.0
	기타공공사회및 개인서비스	42.2	57.8	100.0
직업	고위/(준)전문가	17.3	82.7	100.0
	사무직원	21.1	79.0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33.0	67.0	100.0
	농어업숙련근로자	59.9	40.1	100.0
	기능원	21.8	78.2	100.0
	조작원	23.2	76.8	100.0
	단순노무직	58.1	41.9	100.0
사업 체 규모	10인 미만	28.5	71.6	100.0
	10~29인	31.4	68.6	100.0
	30~99인	24.0	76.0	100.0
	100~299인	29.8	70.2	100.0
고용 형태	300인 이상	22.6	77.4	100.0
	정규직	23.4	76.6	100.0
	비정규직	45.7	54.3	100.0

주: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 2-9> 7차년도 이후 저소득 경험빈도별 비중

(단위: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전 체
전년도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61.4	12.1	7.2	4.8	4.9	9.7	100.0
세전 월임금 기준	72.4	6.5	4.7	3.6	4.0	8.9	100.0

상으로 특성별 저임금 경험을 분석해 보았다.<sup>3)</sup> 과거 특성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 분석대상 기간은 7차부터 11차년도까지이다. 가능한 극대 빈곤 경험횟수는 5회이다. <표 2-9>는 빈곤 경험횟수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4%가 저소득을 경험한 바 없으며, 38.6%가 저소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1회 경험자 다음으로 계속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세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임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72.4%로 올라간다. 하지만, 저임금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내내 저임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중(8.9%)이 1회만 경험한 사람(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0>은 저소득 경험횟수를 이용해 ordered logit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졸 미만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저임금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훈련은 6차, 9차, 11차의 직업훈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임금 경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훈련이 저임금 경험을 감소시키는 데에서 역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고용지위의 영향을 보기 위해 비정규직 및 비공식고용 경험을 통제하였다. 비정규직은 KLIPS에서 한시근로를 제외하면 6차 이후로 생성가능하다. 따라서 한시근로를 제외한 계약직, 비전형근로, 파트타임으로 정의

3) 이 분석은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KLIPS에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가 존재하는데, 횡단면 가중치는 종단적인 무응답에 대한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연도가 아닌 몇 년에 걸친 연구를 할 경우 적합하지 않다. 종단면 가중치는 종단적인 무응답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대신, 분석대상 표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하였다. 비공식고용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에 직장을 통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비정규직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저소득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공식 고용 경험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 경험도 저소득 경험 가능성을 높였다.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이면 저임금 경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사별은 저임금 경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근로일수가 길수록 저소득 경험 가능성이 낮아지는

<표 2-10> ordered logit을 이용한 저소득 경험 분석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월평균 임금 기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졸	-0.6008	0.1129	0.00	-0.5565	0.1769	0.00
전문대졸	-0.9703	0.1713	0.00	-1.0279	0.2607	0.00
대졸 이상	-1.3173	0.1443	0.00	-1.7676	0.2468	0.00
6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5536	0.1922	0.00	-0.7592	0.3227	0.02
7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656	0.1743	0.34	-0.3049	0.2987	0.31
8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2294	0.1666	0.17	-0.3317	0.2647	0.21
9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6154	0.1602	0.00	-0.5647	0.2610	0.03
10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075	0.1601	0.50	-0.4047	0.2493	0.11
11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3475	0.1895	0.07	0.2060	0.2559	0.42
비정규직 경험 있음	0.4569	0.1004	0.00	0.9091	0.1459	0.00
비공식 고용 경험 있음	1.1502	0.1038	0.00	1.3120	0.1540	0.00
자영업 경험 있음	0.7183	0.1249	0.00	1.7045	0.2350	0.00
여성	1.5474	0.1607	0.00	0.9830	0.2673	0.00
가구주	-0.4661	0.1708	0.01			
여성 가구주	-0.0042	0.2858	0.99	-0.0450	0.4452	0.92
미혼	0.3800	0.1689	0.02	0.3701	0.2767	0.18
이혼 및 사별	0.5085	0.2231	0.02	0.8426	0.3580	0.02
전년도 연간근로일수(단위: 10일)	-0.2586	0.0165	0.00	-0.1317	0.0303	0.00
연령	-0.1906	0.0292	0.00	-0.1875	0.0520	0.00
연령 제곱	0.0030	0.0003	0.00	0.0030	0.0006	0.00
/cut1	-11.1845	0.7806		-5.6829	1.4828	
/cut2	-10.1740	0.7732		-4.9773	1.4789	
/cut3	-9.4771	0.7692		-4.4235	1.4772	
/cut4	-8.8996	0.7664		-3.9362	1.4764	
/cut5	-8.1791	0.7642		-3.2907	1.4767	
표본수	2,982			1,862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은 볼록함수로 낮은 연령과 고연령에서 저소득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10>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저임금 경험횟수 각각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열 로짓의 상수항(표 2-10에서는 /cut으로 표현된)의 통계 유의성 검증을 해보았다. 0회와 1회 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1회와 2회 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검증했는데, 모든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근로소득 지위별 이동

본절에서는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별 이동을 요약한다. 먼저 근로소득 지위, 실업 및 비경활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식의 이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본 후 실업/비경활은 제외하고 근로소득 지위간 이동을 보다 깊이 분석해 보겠다. 소득에 따라 실업이나 비경활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르다면 이를 감안했을 때 이동확률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표 2-11>을 보면 2002→2003년간 저소득층의 57%가 저소득층인 채로 남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 또는 비경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실업과 비경활로의 이동이 절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실업과 비경활을 고려하든 안 하든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업자의 경우 실업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만큼이나 저소득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많았다. 취업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의 다수가 저소득 일자리를 얻는 데에 그쳤다. 비경활이었던 사람도 취업할 경우 다수가 저소득으로 취업하는 데에 그쳤다.

<표 2-12>에서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본질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임금이 낮을수록 실업, 비경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임금층의 경우 실업이나 비경활로 거의 이동하지 않

왔다. 연간근로소득으로 분석할 때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실업자의 이듬해 지위이다. 연간 근로소득으로 분석하면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의 실업자가 저소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실업비경황 포함)

(단위: %)

		저소득	저~중 위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황	전 체
2003(7차년도 조사)								
2002 (6차년도)	저소득	57.0	21.3	7.7	4.0	2.7	7.4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7.1	47.7	20.3	6.0	3.9	5.0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5	16.5	48.9	25.0	1.5	3.6	100.0
	고소득	1.0	3.5	10.0	82.8	0.9	1.8	100.0
	실업	26.7	6.2	3.6	0.0	25.4	38.1	100.0
	비경황	8.2	0.8	0.5	0.3	4.5	85.7	100.0
2004(8차년도 조사)								
2003 (7차년도)	저소득	58.1	21.5	9.1	2.0	3.3	6.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1.1	43.2	23.3	4.5	2.2	5.9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5	14.3	57.8	17.3	2.4	3.6	100.0
	고소득	1.4	3.6	18.4	74.0	1.1	1.4	100.0
	실업	39.7	3.2	1.0	0.0	25.1	31.1	100.0
	비경황	8.9	0.8	0.7	0.3	4.1	85.2	100.0
2005(9차년도 조사)								
2004 (8차년도)	저소득	53.9	20.9	9.5	2.4	3.7	9.6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5.9	45.9	26.2	3.8	2.9	5.3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2.6	14.3	58.1	20.3	1.8	2.9	100.0
	고소득	1.2	1.1	12.5	82.9	0.8	1.7	100.0
	실업	50.6	3.9	0.0	0.6	19.4	25.5	100.0
	비경황	11.2	1.1	0.6	0.1	3.3	83.7	100.0
2006(10차년도 조사)								
2005 (9차년도)	저소득	61.1	15.8	8.0	3.3	2.8	9.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5.4	40.8	20.3	4.4	2.1	7.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5.0	15.7	51.1	22.5	1.6	4.1	100.0
	고소득	1.3	2.1	9.7	85.0	0.8	1.2	100.0
	실업	31.8	7.6	2.9	0.0	21.0	36.8	100.0
	비경황	6.7	0.9	0.2	0.0	3.0	89.1	100.0
2007(11차년도 조사)								
2006 (10차년도)	저소득	61.6	17.0	8.4	2.5	1.2	9.3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6.6	48.7	22.6	5.5	1.7	5.0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3	14.0	54.0	22.7	1.4	3.7	100.0
	고소득	0.7	1.9	9.3	85.1	0.6	2.3	100.0
	실업	41.2	7.5	5.4	0.0	15.1	30.8	100.0
	비경황	8.3	0.5	0.4	0.1	2.6	88.2	100.0

<표 2-12> 세전 월평균 임금 기준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실업비경할 포함)

(단위: %)

		저임금	저~중 위임금	중위~ 고임금	고임금	실업	비경할	전 체
		2005(8차년도 조사)						
2004 (7차년도)	저임금	62.2	19.7	3.2	0.0	5.4	9.5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2.4	50.6	24.4	2.2	2.9	7.4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2.6	12.2	63.6	15.2	2.3	4.1	100.0
	고임금	0.4	1.6	11.5	84.0	1.5	1.0	100.0
	실업	14.8	24.0	15.4	1.2	19.9	24.7	100.0
	비경할	8.8	6.2	3.1	0.7	3.7	77.5	100.0
			2006(9차년도 조사)					
2005 (8차년도)	저임금	65.4	15.8	3.6	0.5	3.7	11.1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9.1	45.8	21.0	2.1	3.8	8.2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3.1	15.5	57.1	19.2	2.5	2.6	100.0
	고임금	0.8	0.9	9.0	87.1	0.6	1.6	100.0
	실업	26.4	14.7	13.0	3.2	18.5	24.3	100.0
	비경할	9.5	6.6	2.9	0.9	3.1	77.1	100.0
			2007(10차년도 조사)					
2006 (9차년도)	저임금	61.8	20.3	2.6	0.7	2.5	12.1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4.9	46.2	25.3	2.9	3.0	7.7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2.3	15.4	57.4	19.6	1.9	3.4	100.0
	고임금	0.2	1.3	8.6	87.5	0.7	1.8	100.0
	실업	12.2	22.1	10.8	2.2	19.1	33.5	100.0
	비경할	5.7	4.7	2.2	0.7	2.8	83.9	100.0
			2008(11차년도 조사)					
2007 (10차년도)	저임금	65.5	16.4	3.9	0.8	1.6	11.7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5.6	53.7	18.9	3.4	1.6	6.8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3.2	14.2	58.3	18.6	1.4	4.3	100.0
	고임금	0.4	1.7	9.8	84.3	0.9	2.9	100.0
	실업	16.9	19.6	12.3	8.0	14.2	29.0	100.0
	비경할	6.4	3.3	2.4	1.2	2.5	84.2	100.0

이는 실업자 중 많은 사람들이 반복실업하는 사람들로 월급여액으로 치면 그다지 낮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일할 수는 없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표 2-13>은 격년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표 2-11>과 비교해 보면, 저소득→저소득 이동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고소득 이동은 초반을 제외하면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자의 상향이동은 늘어난



반면, 고소득자의 하향이동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저소득일수록 실업과 비경황로 많이 이동하는 것은 연간 이동과 큰 차이가 없지만, 비경황로의 이동률이 연간을 분석할 때보다 격년을 분석할 때 더 늘었다는 것은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표 2-13>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실업비경황 포함)

(단위: %)

		저소득	저~중 위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황	전 체
2004(8차년도 조사)								
2002 (6차년도)	저소득	51.1	20.2	12.8	2.6	3.5	10.0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21.5	39.4	23.5	6.4	3.2	6.1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8.0	14.7	50.0	21.2	1.9	4.2	100.0
	고소득	2.0	3.5	18.2	72.5	1.5	2.3	100.0
	실업	27.5	16.6	13.9	6.4	20.9	14.7	100.0
	비경황	16.2	4.6	5.8	1.7	4.8	66.9	100.0
2005(9차년도 조사)								
2003 (7차년도)	저소득	51.5	20.2	11.4	2.2	3.6	11.1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20.8	37.9	26.1	5.4	2.4	7.4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6.2	14.1	51.5	20.9	3.0	4.3	100.0
	고소득	2.2	3.5	16.6	73.8	0.9	3.1	100.0
	실업	24.8	24.8	15.8	4.5	6.6	23.5	100.0
	비경황	15.5	7.5	5.1	2.2	3.9	65.9	100.0
2006(10차년도 조사)								
2004 (8차년도)	저소득	53.0	16.6	9.8	2.8	2.6	15.3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26.6	32.6	21.9	6.1	2.6	10.4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5.3	15.2	43.3	28.1	2.1	6.0	100.0
	고소득	1.3	3.1	10.5	81.4	1.1	2.6	100.0
	실업	36.2	12.4	12.3	4.7	16.8	17.5	100.0
	비경황	13.1	6.6	4.1	2.6	3.3	70.4	100.0
2007(11차년도 조사)								
2005 (9차년도)	저소득	53.4	17.5	9.3	4.4	1.2	14.3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26.4	33.6	20.1	7.1	2.8	10.1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7.5	15.0	42.5	27.3	1.5	6.3	100.0
	고소득	1.5	1.7	10.0	83.2	0.8	2.9	100.0
	실업	25.9	18.5	14.6	8.1	7.0	26.0	100.0
	비경황	11.0	5.0	3.2	1.3	2.1	77.5	100.0

24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표 2-14> 세전 월평균 임금 기준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실업·비경황 포함)

(단위: %)

		저임금	저~중 위임금	중위~ 고임금	고임금	실업	비경황	전 체
		2006(9차년도 조사)						
2004 (7차년도)	저임금	56.9	19.2	6.1	0.1	3.5	14.3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8.5	39.1	28.7	2.3	3.4	8.0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3.5	14.2	48.8	24.8	3.5	5.3	100.0
	고임금	1.2	1.7	10.1	83.9	0.6	2.6	100.0
	실업	21.9	26.9	18.8	3.3	6.4	22.9	100.0
	비경황	14.8	10.4	6.1	2.0	3.7	63.0	100.0
		2007(10차년도 조사)						
2005 (8차년도)	저임금	54.0	20.8	3.8	0.9	2.6	17.9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7.6	39.5	22.2	4.7	2.8	13.1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2.5	13.8	50.5	24.7	2.3	6.2	100.0
	고임금	0.1	0.4	6.5	89.6	0.6	2.8	100.0
	실업	26.0	21.0	14.5	5.1	16.4	17.1	100.0
	비경황	10.6	10.3	5.3	2.0	3.2	68.6	100.0
		2008(11차년도 조사)						
2006 (9차년도)	저임금	56.7	20.2	4.2	1.3	2.0	15.6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6.5	42.0	23.6	4.0	3.0	10.9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2.7	13.7	49.7	25.6	1.6	6.8	100.0
	고임금	0.2	1.9	8.5	84.9	1.2	3.4	100.0
	실업	14.2	23.7	20.6	4.8	7.8	29.0	100.0
	비경황	8.7	6.4	4.1	2.1	2.0	76.8	100.0

<표 2-14>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격년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표 2-12>와 비교해 보면, 저임금→저임금 이동은 줄어든 반면, 고임금→고임금 이동은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임금자의 상향이동은 늘어난 반면, 고임금자의 하향이동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저임금일수록 실업과 비경황로 많이 이동하는 것은 연간 이동과 큰 차이가 없지만, 비경황로의 이동률이 연간을 분석할 때보다 격년을 분석할 때 더 늘었다.

<표 2-15>부터는 실업과 비경황을 제외한 근로소득 지위간 이동을 분석한다. 시간 간격이 늘어나더라도 <표 2-11>~<표 2-14>에서 본 것과 본질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의 초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실업과 비경황은 제외했다.

〈표 2-15〉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고소득	전 체
		2003(7차년도 조사)				
		종단면 가중치 적용				
2002 (6차년도)	저소득	68.1	20.9	7.4	3.7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4.1	49.2	21.0	5.7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4	19.3	49.0	24.3	100.0
	고소득	1.8	4.3	10.5	83.5	100.0
		횡단면 가중치 적용				
2002 (6차년도)	저소득	69.5	20.6	6.5	3.4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4.9	48.6	20.2	6.3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4	19.4	49.1	24.1	100.0
	고소득	1.8	4.2	10.6	83.4	100.0
		2004(8차년도 조사)				
2003 (7차년도)	저소득	67.8	21.7	8.6	1.8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6.9	45.3	23.4	4.5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6	16.5	58.1	17.8	100.0
	고소득	2.3	3.9	19.2	74.7	100.0
		2005(9차년도 조사)				
2004 (8차년도)	저소득	68.0	21.2	8.8	2.1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5.7	45.9	24.9	3.5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5.9	15.6	58.6	20.0	100.0
	고소득	2.2	1.7	13.2	82.9	100.0
		2006(10차년도 조사)				
2005 (9차년도)	저소득	71.9	17.2	7.9	3.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1.6	43.0	20.9	4.5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5	17.0	52.3	23.2	100.0
	고소득	1.7	2.9	10.0	85.4	100.0
		2007(11차년도 조사)				
2006 (10차년도)	저소득	71.7	17.9	8.1	2.4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3.2	49.4	22.3	5.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6.2	15.8	55.4	22.5	100.0
	고소득	1.9	2.3	10.0	85.8	100.0

주: 2003년(7차년도) 이후의 결과는 모두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

<표 2-15>는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을 보여준다. 1년이 지나면 저소득층은 2002→2003년, 2003→2004년, 2004→2005년간에는 대략 68% 남짓이 그대로 저소득층에 머물렀으며, 2005→

2006년, 2006→2007년간에는 70% 초반대가 저소득층인 채로 남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계층의 경우 해당 계층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는 절반 남짓으로, 나머지는 위아래로 이동하였는데 다소 상향이동 비중이 높았다.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계층의 경우 해당 계층에 그대로 머무는 비중은 49~58% 정도로 저소득~중위소득보다 많다. 다른 소득 계층으로의 이동은 상향이동보다 하향이동이 높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의 경우, 해당 계층에 머무는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80% 초반대가 그대로 머물렀다.

본절에서는 모두 중단면 가중치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 혹시 가중치를 달리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2002→2003년에 적용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4)</sup>

다음으로는 <표 2-16>에서 직장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이직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근로소득 지위 유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의 이행만 분석했는데, 직장유지자의 경우 이직자에 비해 전년도 지위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언뜻 보면 직장 변화가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소득 이상자 집단으로부터 저소득으로의 하향이동이 직장유지자보다 직장비유지자에서 더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표만으로는 직장유지가 이직보다 더 저소득 탈출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는 없다. 이직을 거듭하면서 반복실업하거나 하향이동 중인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이 표로부터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다른 해도 수치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했다.

4) 짧은 시간 간격 안에서는 응답탈락 문제가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표본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횡단면 가중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중단면 가중치의 보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 일부 집단에서 집중적인 탈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가중치의 결과가 유사해 이런 상황은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16〉 직장변화 여부별 2003→2004년간 소득지위 이동(연간근로소득)

(단위: %)

직장 유지자					
	저소득	저소득 ~ 중위소득	중위소득 ~ 고소득	고소득	전 체
저소득	76.0	18.3	4.8	1.0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25.7	47.8	22.6	3.9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5.4	15.3	61.4	18.0	100.0
고소득	1.9	3.6	18.3	76.2	100.0
직장 비유지자					
저소득	55.0	27.1	14.7	3.1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31.0	36.2	26.1	6.7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14.6	20.5	47.7	17.2	100.0
고소득	5.7	6.5	27.4	60.5	100.0

〈표 2-17〉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연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임금	저임금 ~ 중위임금	중위임금 ~ 고임금	고임금	전 체
2005(8차년도 조사)						
2004 (7차년도)	저임금	73.5	22.8	3.7	0.0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3.9	56.6	27.1	2.5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2.8	13.1	68.0	16.1	100.0
	고임금	0.4	1.6	11.8	86.2	100.0
2006(9차년도 조사)						
2005 (8차년도)	저임금	77.0	18.4	4.1	0.5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21.9	51.9	23.8	2.4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3.2	16.4	60.2	20.3	100.0
	고임금	0.8	0.9	9.2	89.1	100.0
2007(10차년도 조사)						
2006 (9차년도)	저임금	72.5	23.7	3.0	0.8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7.0	51.8	28.0	3.2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2.6	16.3	60.5	20.6	100.0
	고임금	0.2	1.3	8.8	89.7	100.0
2008(11차년도 조사)						
2007 (10차년도)	저임금	75.5	19.4	4.3	0.9	100.0
	저임금 ~ 중위임금 미만	17.2	59.0	20.1	3.7	100.0
	중위임금 ~ 고임금 미만	3.9	14.8	61.2	20.1	100.0
	고임금	0.4	1.8	10.4	87.4	100.0

<표 2-17>은 월평균 임금을 이용해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15>에 비해 저임금에 그대로 머무르는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임금에서만이 아니라 저임금~중위임금, 중위임금~고임금 계층에서도 그대로 머무르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또한 <표 2-11>에서는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계층에서는 상향이동자 비중이 다소 높고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계층에서는 하향이동자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 2-17>에서는 두 계층 모두에서 상향이동자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느 쪽 표를 이용하든 간에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고, 따라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sup>5)</sup>

<표 2-18>은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표 2-16>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2-16>과 유사한 패턴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표 2-19>는 격년간 이동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저소득층, 저소득~중위소득 미만층, 중위소득~고소득 미만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도 간 이동에 비해 해당 계층에 머무를 확률은 낮아지고 이동할 확률은 높

<표 2-18> 직장변화 여부별 2004→2005년 소득지위 이동(월평균 임금)

(단위: %)

직장유지자					
	저소득	저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고소득	전 체
저소득	74.2	22.3	3.4	0.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2.4	58.8	26.4	2.4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2.4	11.9	68.6	17.1	100.0
고소득	0.2	1.7	11.2	86.8	100.0
직장 비유지자					
저소득	69.5	25.2	5.3	0.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1.1	45.6	30.5	3.0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6.1	22.8	63.1	8.1	100.0
고소득	3.4	0.0	22.0	74.6	100.0

5) <표 2-11>은 자영/고용주→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자영/고용주 이동이 모두 허용되는 데 반해 <표 2-12>의 결과는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로의 이동만 허용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표 2-11>에서 본 것처럼 다수이기는 하지만,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표 2-12>의 결과는 선택편의가 개입된 것일 수도 있다.

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경우 대략 5%포인트 가량 머무를 확률이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2002~2004년 이동, 2003~2005년 이동에서는 다소 머무를 확률이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높은 정착성은 연도를 2개년으로 확대해도 상당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표 2-19>는 2002년, 2003년, 2004년 연속으로 계속 저소득인 사람, 계속 고소득인 사람을 계산한 것이 아니다. 2002년에는 저소득이었지만 2003년에는 저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일 수도 있다. 2002년에 저소득층이었던 사람들 중 2003년의 소득지위와는 상관없이 다시 2004년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비중이 61%라는 것이다.

<표 2-20>은 직장 변화 여부별로 2003년에서 2005년으로의 소득지위

<표 2-19>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2004(8차년도 조사)				
		저소득	저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 고소득	고소득	전 체
2002 (6차년도)	저소득	61.0	22.3	13.8	2.9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6.7	42.9	24.2	6.2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1.3	16.0	51.6	21.1	100.0
	고소득	3.2	3.9	18.9	74.0	100.0
		2005(9차년도 조사)				
2003 (7차년도)	저소득	63.2	22.6	12.0	2.2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7.4	39.8	27.0	5.8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9.6	15.9	53.1	21.4	100.0
	고소득	3.4	4.2	17.6	74.9	100.0
		2006(10차년도 조사)				
2004 (8차년도)	저소득	66.2	19.8	10.3	3.7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3.2	36.3	24.2	6.3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9	16.9	44.9	30.4	100.0
	고소득	1.7	3.9	11.3	83.1	100.0
		2007(11차년도 조사)				
2005 (9차년도)	저소득	65.3	20.0	10.5	4.3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2.6	37.9	22.5	7.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9.9	17.5	44.1	28.4	100.0
	고소득	2.0	1.9	10.7	85.4	100.0

〈표 2-20〉 직장변화 여부별 2003→2005년 소득지위 이동(연간근로소득)

(단위: %)

	직장유지자				전 체
	저소득	저소득~중 위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고소득	
저소득	72.1	19.0	7.7	1.2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0.1	44.6	29.6	5.7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6	15.1	59.8	20.5	100.0
고소득	1.9	3.1	16.2	78.9	100.0
직장비유지자					
저소득	54.8	26.0	16.1	3.1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8.6	32.4	22.9	6.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9.0	17.4	40.8	22.9	100.0
고소득	9.9	9.1	23.5	57.5	100.0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연도간으로 보았을 때와 패턴은 다르지 않다. 같은 직장에 머문 사람은 해당 소득지위에 머물거나 상향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직자는 해당 소득지위에 머물 가능성이 유지자에 비해 낮고 하향이동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직장유지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에서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해 분석해 보아도 <표 2-19>의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저임금층, 저임금~중위임금 미만층, 중위임금~고임금 미만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도간 이동에 비해 해당 계층에 머무를 확률은 낮아지고 이동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고소득층은 머무를 확률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소득층은 2개년으로 확대해도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정착성을 보이는 셈이다. <표 2-20>에서 보듯이 월평균 임금으로 분석해 보아도 역시 패턴은 <표 2-20>과 같게 나타났다.

<표 2-23>은 3년 뒤 근로소득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할 경우 이전 분석들과 유사하게 저소득층, 저소득~중위소득 미만층, 중위소득~고소득 미만층의 경우 격년간 변화에 비해 3~5%포인트 정도씩 해당 계층의 정착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는 정착률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표 2-23>에서 2002~2005년까지 계속 저소득층인 사람의 비중이 56.1%



라는 의미가 아니다. 2002년 저소득층 중 2003년과 2004년의 소득지위와 상관없이 2005년에 다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비중이 56.1%라는 의미이다.

<표 2-21>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격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임금	저임금~ 중위임금	중위임금~ 고임금	고임금	전 체
2006(9차년도 조사)						
2004 (7차년도)	저임금	69.3	23.3	7.4	0.2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20.9	44.1	32.4	2.6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3.8	15.6	53.5	27.2	100.0
	고임금	1.2	1.7	10.4	86.7	100.0
2007(10차년도 조사)						
2005 (8차년도)	저임금	68.1	26.1	4.8	1.1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21.0	47.0	26.4	5.6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2.7	15.0	55.2	27.0	100.0
	고임금	0.1	0.4	6.7	92.8	100.0
2008(11차년도 조사)						
2006 (9차년도)	저임금	68.9	24.4	5.1	1.6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19.2	48.8	27.4	4.7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2.9	14.9	54.3	27.9	100.0
	고임금	0.2	1.9	8.9	89.0	100.0

<표 2-22> 직장변화 여부별 2003→2005년간 소득지위 이동(월평균 임금)

(단위: %)

직장유지자					
	저임금	저임금~ 중위임금	중위임금~ 고임금	고임금	전 체
저임금	75.7	18.0	6.0	0.3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18.2	45.6	33.3	3.0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3.0	13.5	54.4	29.2	100.0
고임금	0.4	1.5	9.0	89.1	100.0
직장비유지자					
저임금	59.3	31.3	9.5	0.0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27.3	40.8	30.3	1.7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6.8	23.7	50.1	19.4	100.0
고임금	7.2	3.4	21.0	68.4	100.0

&lt;표 2-23&gt;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3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소득~중 위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고소득	전 체
2005(9차년도 조사)						
2002 (6차년도)	저소득	56.1	24.4	14.7	4.8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7.7	38.0	27.2	7.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0.2	16.2	49.2	24.4	100.0
	고소득	4.7	4.4	18.0	72.9	100.0
2006(10차년도 조사)						
2003 (7차년도)	저소득	64.1	20.2	12.2	3.6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1.8	32.3	26.2	9.7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0.1	18.5	41.8	29.7	100.0
	고소득	4.0	4.7	13.7	77.6	100.0
2007(11차년도 조사)						
2004 (8차년도)	저소득	62.5	20.5	12.1	4.9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9.1	36.4	26.0	8.5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0.5	16.4	38.8	34.3	100.0
	고소득	2.7	2.7	11.3	83.4	100.0

<표 2-24>에서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할 경우에도 연간근로소득으로 볼 때와 유사하게 저임금층, 저임금~중위임금 미만층, 중위임금~고임금 미만층은 전반적으로 연도간 이동에 비해 해당 계층에 머무를 확률은 낮아지고 이동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고임금층은 여전히 격년간 또는 매년간 이동과 다르지 않은 정착률을 보였다.

<표 2-25>는 4년 뒤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본 근로소득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약하고 있다. 3년 간격으로 본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저소득층, 저소득~중위소득 미만층, 중위소득~고소득 미만층의 경우 3년 간격으로 보았을 때에 비해 해당 계층의 정착률이 떨어졌으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정착률이 유지되었다. 저소득층은 기간을 연장할수록 상향 이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고소득층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하향 이동자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6) <표 2-25>도 2002~2006년까지 계속 저소득층인 사람의 비중이 59.8%라는 의미가 아니다. 2002년 저소득층 중 2003년, 2004년, 2005년의 소득지위와 상관없이 2006년에 다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사람의 비중이 59.8%라는 의미이다.

〈표 2-24〉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3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임금	저임금~ 중위임금	중위임금~ 고임금	고임금	전 체
2007(10차년도 조사)						
2004 (7차년도)	저임금	63.7	26.9	8.0	1.5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17.5	42.4	33.6	6.6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4.4	15.5	45.8	34.3	100.0
	고임금	0.3	1.6	7.8	90.3	100.0
2008(11차년도 조사)						
2005 (8차년도)	저임금	64.6	26.7	7.4	1.3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22.9	40.2	30.7	6.3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3.9	15.0	47.8	33.4	100.0
	고임금	1.0	1.5	6.6	90.9	100.0

〈표 2-25〉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4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고소득	전 체
2006(10차년도 조사)						
2002 (6차년도)	저소득	59.8	19.9	13.4	6.9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3.3	30.6	27.0	9.2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1.8	16.5	42.0	29.7	100.0
	고소득	4.4	6.7	13.1	75.9	100.0
2007(11차년도 조사)						
2003 (7차년도)	저소득	61.7	20.0	12.3	5.9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8.2	29.9	27.1	14.8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2.1	19.0	37.0	32.0	100.0
	고소득	5.2	5.1	13.3	76.5	100.0

<표 2-26>에서 세전 월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도 연간근로소득으로 볼 때와 유사하게 저임금층, 저임금~중위임금 미만층, 중위임금~고임금 미만층은 전반적으로 연도간 이동에 비해 해당 계층에 머무를 확률은 낮아지고 이동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고임금층은 여전히 격년간 또는 매년간 이동과 다르지 않은 정착률을 보였다.

끝으로, <표 2-27>에서는 5년 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절반이 넘는 56.6%가 여전히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었다. 4년 간격으로 보나 5년 간격

34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표 2-26> 세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 4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저임금	저임금~ 중위임금	중위임금~ 고임금	고임금	전 체
		2008(11차년도 조사)				
2004 (7차년도)	저임금	58.7	29.8	8.8	2.7	100.0
	저임금~중위임금 미만	19.9	37.2	33.1	9.8	100.0
	중위임금~고임금 미만	6.4	15.7	41.5	36.3	100.0
	고임금	1.2	2.2	7.2	89.4	100.0

<표 2-27>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이용한 5년간 소득지위 이동

(단위: %)

		2007(11차년도 조사)				전 체
		저소득	저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고소득	고소득	
2002 (6차년도)	저소득	56.6	20.5	14.4	8.6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30.8	31.2	25.8	12.2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4.9	16.3	36.6	32.2	100.0
	고소득	5.3	5.8	13.0	76.0	100.0

으로 보나 소득지위별 이동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제3절 저소득 탈출 분석

이하에서는 7차년도에 저소득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11차년도에 저소득을 탈출할 확률에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7차년도의 연간근로소득은 전년도 발생소득이므로 6차년도 조사 시점 현재의 특성 정보들이 필요하여 두 정보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 6차년도 연간 소득이 아닌 7차년도 소득을 분석의 시작 시점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종속변수는 7차년도(2003년)에는 저소득자였으나 11차년도(2007년)에는 비저소득자가 된 경우 1, 여전히 저소득자인 경우 0인 이항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므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선형확률모형은 이분산이 존재하며 그 형태가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는 GLS방식으로 분산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사업체 규모가 통제되었다. KLIPS에서는 한시근로가 10차년도 이전에는 정의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는 한시근로를 제외한 계약직, 파견, 용역, 가내근로, 특수고용, 시간제를 비정규직 변수로 묶어 설명변수로 통제하였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은 비공식 고용변수로 정의하고 설명변수로 통제하였다. 학력(고졸 미만 기준), 직업훈련, 연령(25~29세 기준), 성별(남성 기준), 가구주 여부, 여성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미혼 기준), 연간근로일수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2-28>을 보면 세 가지 모형이 추정되어 있다. (가)와 (다)는 같은 표본에 대해 사업체 특성을 추가한 것("다")과 아닌 것("가")의 차이가 있다.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결측치로 인해 표본수 손실이 생긴다. (가)는 (다)와 동일한 표본에 대해 추정한 것이므로 표본수 손실이 발생한 후 추정된 결과이다. (나)는 사업체 특성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을 경우 사업체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가)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추정한 것이다.

먼저, (가)의 결과를 보자. 대졸 이상은 탈출확률이 고졸 미만에 비해 20%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나머지 학력은 고졸 미만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최근 직업훈련 경험이 저소득 탈출과 통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9차년도의 경우 예상과 달리 계수가 음(-)이므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듯 보인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기준인데 젊을수록 60대 이상에 비해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가구주, 여성 가구주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혼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연간근로일수는 길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28>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저임금 탈출(2003→2007년)

	(가)		(나)		(다)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고졸	0.0210	0.68	0.0862	0.00	0.0155	0.69
전문대졸	-0.0079	0.91	0.0698	0.13	-0.1508	0.02
대졸 이상	0.2092	0.00	0.1769	0.00	0.1989	0.01
6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0667	0.46	-0.1062	0.04	-0.1748	0.05
7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077	0.35	0.1841	0.00	0.1266	0.18
8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0473	0.47	0.0004	0.99	0.0978	0.15
9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309	0.05	0.0823	0.05	0.0364	0.60
10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2606	0.00	0.2083	0.00	0.2166	0.00
30대 미만	0.3233	0.00	0.3052	0.00	0.2886	0.00
30대	0.2843	0.00	0.1894	0.00	0.1446	0.03
40대	0.1724	0.00	0.1883	0.00	0.1218	0.03
50대	0.1076	0.01	0.1058	0.00	0.0557	0.29
여성	-0.3112	0.00	-0.1050	0.08	-0.2063	0.00
가구주	-0.0647	0.31	0.1108	0.07	-0.0294	0.66
여성*가구주	0.0638	0.45	-0.0499	0.49	0.8000	0.43
미혼	0.0448	0.41	0.0241	0.57	0.1076	0.08
이혼/사별	-0.0171	0.76	-0.0397	0.31	0.0329	0.65
연간근로일수	0.0011	0.00	0.0013	0.00	0.0008	0.00
비정규직(2003년)					0.0174	0.59
비정규직(2007년)					-0.1539	0.00
비공식고용(2003년)					0.0046	0.91
비공식고용(2007년)					-0.0839	0.05
자영/고용주(2003년)					0.4059	0.00
자영/고용주(2007년)					-0.0666	0.55
상수항	-0.0245	0.77	-0.3035	0.00	0.0325	0.80
표본수	497		941		497	
R <sup>2</sup>	0.6663		0.5569		0.8036	
Adj-R <sup>2</sup>	0.6537		0.5483		0.7718	

다음으로 (가)에 사업체 특성을 추가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를 통해 살펴보자. 전문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계수가 상식과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대졸 이상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직업훈련은 최근의 직업훈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6차년도 직업훈련도 유의하지만, 계수 방향이 상식과 다르다.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는 저소득 탈출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젊을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보다 탈출 가능성이 낮았고, 기혼보다는 미혼인 사람의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근로일수는 여전히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소득 탈출 가능성을 높였다. 사업체 특성 중 규모, 직종, 산업은 따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는 보고하였다. 이를 보면 자영업 경험을 제외하면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고용형태가 저소득 탈출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의 영향은 장기적이기보다 단기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상의 결과는 겨우 49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통제하는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서 분산의 추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결측값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계수 추정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특성변수들로 인해 결측값이 발생하기 전의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 특성 통제 없이 추정한 (나)의 결과를 이용해 (가)와 비교해 보자.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도가 개선되고, 보다 상식에 가까운 결과로 더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가)와 (다)의 분석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나), (다)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비교적 강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학력은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긍정적인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적자본 축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은 젊을수록 유리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리하다. 연간근로일수가 길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실업과 비경황에 머무르는 기간이 최대한 짧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업체 특성을 추가하면 상당한 정도의 설명력 개선이 나타났다.  $R^2$ 를 보면,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기 전인 (가)의 모형 설명력은 66.7%인 한편,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면 80.3%로 13.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개인의 인적특성 못지않게 사업체 특성도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고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2-29>에서는 사업체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프로빗을 통해 <표

2-28> 결과의 모형 선택 변화에 따른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보다 시간 간격을 좁혀 연도간, 격년, 3년간 이동시 어떻게 변수의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선형확률모형과 프로빗모형 간에 결과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 간격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면 고졸 미만에 비해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연도간(2003→2004년), 격년 간(2003→2005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보다 더 시간 간격이 길어져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2003→2007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있었는데, 직전 과거보다는 3~4년쯤의 시차가 있는 과거에 받은 직업훈련이 저임금 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짧은 이행 기간(2003→2004년, 2003→2005년)에서는 분석 시작 시점에서 비정규직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임금 탈출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보다 긴 이행 기간(2003→2006년, 2003→2007년)을 보면 분석 시작 시점 비정규직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분석 종료 시점의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전히 저임금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탈출과 관련해 비정규직인 것은 앞으로 1, 2년의 저임금 탈출 가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지만, 그 이후의 저임금 탈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7)</sup>

비공식 고용은 분석 종료시점에서의 비공식 고용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비공식 고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비공식 고용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8)</sup>

자영/고용주는 2003→2007년 이행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계수 부호도 일정치 않아 해석하기 어렵다. 연령은 젊을수록 저소득 탈출에 도움이 된다. 근로일수는 증가할수록 저임금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7) 하지만, 회귀계수는 3, 4년 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음(-)이다.

8) 과거의 비공식 고용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긴 하지만 회귀계수가 상식과는 다른 점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 2-29〉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저임금 탈출: 프로빗 분석

	2003→2004년		2003→2005년		2003→2006년		2003→2007년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고졸	-0.0665	0.72	0.2101	0.26	0.0391	0.84	0.1648	0.42
전문대졸	0.0216	0.95	0.2408	0.43	0.0567	0.86	-0.0455	0.90
대졸	0.2158	0.56	-0.0241	0.95	1.0847	0.00	1.3275	0.00
6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2554	0.55	-0.5350	0.22	0.4568	0.34	-0.9739	0.02
7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3745	0.40	-0.2492	0.54	0.4077	0.31	0.8614	0.05
8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894	0.57	0.0740	0.83	0.4439	0.28
9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0472	0.88	0.1532	0.68
10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2642	0.49
비정규직(시작 시점)	-0.4807	0.01	-0.3442	0.05	-0.0617	0.71	-0.1127	0.52
비정규직(당해 시점)	0.0083	0.97	-0.1458	0.41	-0.5540	0.00	-0.4964	0.01
비공식 고용(시작 시점)	0.2749	0.18	0.1144	0.52	0.0178	0.92	0.1255	0.54
비공식 고용(당해 시점)	-0.5085	0.02	-0.3271	0.08	-0.6499	0.00	-0.5546	0.00
자영/고용주(시작 시점)	0.8520	0.15	0.8826	0.34	-0.5813	0.38	2.4339	0.00
자영/고용주(당해 시점)			-0.3838	0.65	0.4837	0.39	-0.1236	0.77
30대 미만	1.2974	0.01	2.2436	0.00	1.7926	0.00	2.1812	0.00
30대 미만	1.1881	0.00	1.4167	0.00	1.2766	0.00	1.3118	0.01
40대	1.0513	0.00	0.8560	0.01	0.9598	0.01	1.0902	0.01
50대	0.8219	0.01	0.7547	0.02	0.7055	0.07	0.7931	0.08
여성	-0.4503	0.18	0.0057	0.99	-0.4261	0.24	-1.1633	0.00
가구주	0.7511	0.04	0.7241	0.06	0.6306	0.10	-0.1158	0.76
여성가구주	-0.7778	0.15	-0.4348	0.39	-0.6983	0.18	0.4377	0.37
미혼	0.3043	0.29	-0.3036	0.33	0.1128	0.73	-0.0287	0.92
이혼/사별	-0.1538	0.70	-0.1427	0.67	0.0244	0.94	0.5264	0.10
연간근로일수(해당 시점)	0.0014	0.14	0.0074	0.00	0.0082	0.00	0.0089	0.00
상수항	-2.4684	0.00	-4.2853	0.00	-4.5535	0.00	-4.7994	0.00
표본수	530		546		515		480	

## 제4절 소 결

제2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근로일수가 근로소득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근로소득지위별로 실제 일한 날의 수를 분석할 경우에도 확인되며, 저임금(소득)자의 실업 또는 비경활로의 이동을 분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성별, 30대 여부, 대출 이상 여부 같은 개인의 특성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고용에 있는지 같은 일자리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 저임금 탈출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인적자본량이 저임금 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비록 여성이며 30대가 아니면 개인 특성은 별 영향이 없었지만, 직업훈련을 받으며 대출 이상이면 저임금 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업훈련은 단기와 장기 효과는 없는 듯 보이지만 중기 효과는 존재했다.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이나 전문대졸인 것은 별 효과가 없었지만 대출 이상이면 확연한 저임금(소득) 탈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은 저임금(소득)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저임금자일수록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고임금자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일단 실업상태에 빠진다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지원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보이듯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저소득 탈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공식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고,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 전망이 좋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개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동반되어야만 저임금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저임금(소득)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한데,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훈련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년층이나 장년 남성계층과는 달리 고령층이나 여성 등 일부 취약계층의 저임금 탈출은 분석 결과에서 보이듯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체계 확충은 이상의 세 가지 노력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KLIPS의 표본 수 부족으로 인해 보다 엄밀한 저임금(또는 소득)층의 정의, 이에 기반하는 보다 엄밀한 연구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일자리 특성을 보다 엄밀히 다루려면 사업체-개인패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시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제 3 장

##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경로 및 이행행태가 임금수준별·인적특성별·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르며, 또한 이행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특정집단의 노동력, 특히 일자리 이행에서 배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저임금 여부별 구분을 중심으로 저임금 고용의 특성,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확률, 취업·미취업상태 탈출확률의 결정요인, 저임금으로의 이행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연간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의 이동, 즉 어떤 연도에서의 임금지위가 다음 연도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개인의 모든 일자리 이력정보를 포함하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일자리 기준에서의 이행, 즉 어떤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행을 고찰한다. 일자리 기준의 이행 분석은 연도간 이행과정에서 복수의 일자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은 각각 연도 기준 및 일자리 기준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해 상호보완적이면서도 풍부한 분석 결과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제1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기초통계

### 1. 분석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생산하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차년도 조사의 직업력 자료를 사용한다. KLIPS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는 1998년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11차년도에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이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한 일자리를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하는 직업력 자료는 취업 형태(임금, 비임금)와 일자리 계속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8가지 유형에 대한 개인용 예비조사를 토대로 구성된다.

KLIPS 직업력 자료에는 일자리 발견 차수,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 일자리 번호,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의 보유/미보유 여부, 일자리 형태(임금, 비임금), 주된 일자리 여부, 취업 시기와 퇴직 시기, 구직 활동 관련, 업종 및 직종,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 지위, 근로 시간 형태, 임금소득 관련 사항, 실업급여, 사회보험, 기업규모, 노동조합, 교대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KLI, 「한국노동패널 유저 가이드」, 2009).

본 연구에서는 회고적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회고적 일자리에 관한 정보는 표본 구성에서 제외한다. 또한 분석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1991년 이전에 입직한 일자리와 1998년 이전에 이직한 일자리를 제외한다. 개인의 인적특성(성, 연령,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KLIPS 개인조사로부터 추출하여 직업력 자료와 결합한다. 이렇게 구성된 직업력 자료에서 개인별로 관측되는 첫째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을 뽑아 최종적인 분석 표본을 구성한다.<sup>9)</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출된 최종 분석 표본은 7,998명의 개인이 보유한 16,955

개(1인당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포함한다.

직업력 자료에서 제공되는 취업 시기와 퇴직 시기로부터 취업기간과 미취업기간을 계산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월평균 임금 또는 월평균 소득(자영업)은 조사 시점에서 계속 보유하는 일자리는 조사 시점에서, 그리고 조사 시점에서 그만둔 일자리는 그만둔 시점에서의 세금 공제후 월평균 임금(또는 소득)으로 측정된다. 월평균 임금(또는 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임금(또는 소득)으로 환산한다. 중위임금은 1(1998년)~11차(2008) KLIPS 개인조사에서 각 연도별로 계산한 다음, 일자리가 종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결합한다.

본 연구에서 저임금근로자는 OECD의 정의에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된다. KLIPS 개인조사로부터 계산된 매 연도별 저임금(명목)의 상한 수준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2008년의 경우 임금근로의 저임금 고용은 월평균 임금이 106.7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비임금근로는 133.3만원 미만으로 계산되었다.

<표 3-1> 연도별 저임금(명목 기준)의 상한 기준(중위임금×2/3)

	KLIPS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자영업)	전 체 (임금+비임금)
1998	1차	66.7	46.7	64.0
1999	2차	60.0	66.7	66.7
2000	3차	66.7	66.7	66.7
2001	4차	66.7	86.7	66.7
2002	5차	73.3	100	80.0
2003	6차	80.0	100	86.7
2004	7차	86.7	100	96.7
2005	8차	98.0	100	100.0
2006	9차	100.0	116.7	100.0
2007	10차	100.0	133.3	102.0
2008	11차	106.7	133.3	113.3

9) 첫 번째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로 표본이 구성되지만,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개별 근로자가 가지게 되는 일자리 형태 정보에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가 모두 포함된다.

## 2. 기초통계

<표 3-2>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전체 임금근로자(7,998명) 가운데 저임금근로자는 39.2%(3,137명), 비저임금근로자는 60.8%(4,861명)를 차지하며, 평균 실질임금은 140.3만원이고 평균 일자리수는 2.1개이다. <표 3-2>는 첫 일자리 기준으로 저임금 여부별로서,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등 다양한 근로자 특성별 분포가 어떠한지, 그리고 평균 실질임금과 일자리수를 보여준다.

먼저, 근로자의 인적특성별로 살펴보자. 성별로는 저임금 고용 가운데 여성이 67.0%, 남성이 33.0%를 차지하여 저임금 고용의 2/3 정도가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크게 높고 일자리수는 비슷하다. 연령계층별로는 저임금 가운데 25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35.6%로 가장 높고 35~54세 연령층도 29.7%를 차지하며, 비저임금에서는 25~34세(44.3%)와 35~54세(35.7%)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실질임금 수준은 35~54세에서 가장 높고, 25~34세, 25세 미만, 55세 이상 순으로 뒤를 잇는다. 특히, 25세 미만의 경우 실질임금이 가장 낮고, 일자리 경험은 2.4회로 가장 높다. 학력별로는 저임금 고용이 고교 이하 저학력층에서 집중 발생하고 비저임금 고용에서는 대학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높으며, 실질임금은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속한 기업특성별로 살펴보자. 먼저, 산업별로는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이 각각 저임금 고용의 20% 내외를 차지하며, 비저임금 고용에서는 제조업의 비중(26.1%)이 가장 높고, 이어서 유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다. 실질임금은 사업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반면, 개인서비스업과 농광업에서 가장 낮다. 직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종과 생산직종이 저임금 고용의 86.5%를 점하며, 실질임금은 임원·전문가직이 가장 높고, 사무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88%)에서,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65%)에서,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기업(95.7%)에서 저임금이 집중 발생한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실질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그리고 노조기

<표 3-2> KLIPS 직업력 자료의 기초통계

		근로자 특성별 구성			평균 실질임금	평균 일자리 수
		전 체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7,998 (100.0)	3,137 (100.0)	4,861 (100.0)	140.3	2.1
성	여성	47.1	67.0	34.2	111.2	2.1
	남성	52.9	33.0	65.8	166.2	2.1
연령	평균(년)	35.5	36.2	35.0		
	15~24세	22.7	35.6	14.3	78.0	2.4
	25~34세	34.2	18.5	44.3	141.9	2.1
	35~54세	33.3	29.7	35.7	147.9	2.1
	55세 이상	9.8	16.2	5.8	93.4	1.7
학력	평균(년)	12.6	11.5	13.3		
	중학교 이하	19.3	29.7	12.5	82.9	2.2
	고교	35.7	36.0	35.5	113.5	2.3
	전문대	15.8	14.0	17.1	123.1	2.0
	대학 이상	29.2	20.3	35.0	167.0	1.9
산업	농광업	1.0	1.4	0.8	87.2	2.3
	제조업	24.0	20.8	26.1	128.7	2.2
	건설업	8.3	5.0	10.3	140.5	2.2
	개인서비스	14.0	22.9	8.3	80.5	2.2
	사업서비스	14.1	10.6	16.4	157.1	1.9
	유통서비스	19.3	17.2	20.7	125.0	2.2
	사회서비스	19.3	22.1	17.5	122.9	2.0
직종	임원·전문가	24.4	13.5	31.6	172.1	1.9
	사무·판매서비스	36.5	42.1	32.9	112.6	2.1
	생산직	39.1	44.4	35.6	106.3	2.3
기업 규모	평균(인)	211.1	61.2	316.5		
	30인 미만	77.3	88.0	69.8	103.3	2.1
	30~99인	12.3	7.7	15.7	150.9	2.1
	100~299인	4.3	2.8	5.3	154.0	2.0
	300인 이상	6.1	1.6	9.2	218.9	1.8
고용 형태	비정규직	37.4	65.0	20.3	80.0	2.2
	정규직	62.6	35.1	79.7	158.5	2.0
노조 유무	무노조	86.0	95.7	80.0	116.3	2.2
	노조	14.0	4.3	20.0	203.7	1.6

주: 인적특성 변수를 제외한 변수 값은 첫 일자리 기준으로 계산.



업과 무노조기업 간에 커다란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여기서 어떤 근로자특성 계층이 저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 특성 계층 내에서 저임금 발생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특성 계층의 근로자 수가 많다면 전체 저임금 고용(또는 비저임금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근로자특성 계층별로 저임금 고용(또는 비저임금 고용)의 발생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3>은 성,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등 다양한 특성 기준에 대해 특성 계층별로 저임금 고용과 비저임금 고용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 가운데 55.8%가 저임금인 반면, 남성은 24.5%만이 저임금 고용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4세)과 고령층(55세 이상)에서는 저임금 발생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25~34세 연령층의 저임금 발생 비율은 20.2%로 매우 낮고 35~54세 연령층도 34.9%로 낮은 편이다. 청년층의 경우 저임금 발생 비율이 매우 높으나 이어지는 연령층(25~34세)에서는 저임금 발생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의 경우 이후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35~54세 연령층의 저임금 발생 비율은 낮으나 이어지는 연령층(55세 이상)으로 가면 저임금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서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임금 발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학력일수록 저임금 고용에 빠질 위험성이 커짐을 보여준다.

직종별로는 임원·전문가 직종의 경우 저임금 발생 비율이 21.7%로 매우 낮은 반면, 사무·판매·서비스직종과 생산직종은 저임금 발생 비율이 45% 수준으로 높다. 산업별로 보면, 산업간 저임금 발생 비율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개인서비스업의 저임금 발생 비율이 64.1%로 가장 높고, 농광업과 사회서비스업도 저임금 발생 비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는 반면, 건설업(24.0%), 사업서비스업(29.5%), 제조업(33.9%), 유통서비

48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스업(34.9%)은 저임금 발생 비율이 낮은 산업군에 포함된다. 기업규모별로도 저임금 발생 비율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저임금 발생 비율이 46.5%로 가장 높고, 30~99인 규모와 100~299인 규모는 25% 내외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저임금 발생 비율이 10.4%로 매우 낮다.

〈표 3-3〉 근로자특성별 저임금 여부 분포(첫째 일자리 기준)

		근로자 특성별 저임금 여부 비율 (첫째 일자리 기준)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39.2	60.8
성	여성	55.8	44.2
	남성	24.5	75.5
연령	15~24세	61.7	38.3
	25~34세	21.2	78.8
	35~54세	34.9	65.1
	55세 이상	64.5	35.5
학력	중학교 이하	61.2	8.8
	고교	40.2	59.8
	전문대	35.1	64.9
	대학교 이상	27.7	72.3
산업	농·광업	54.2	45.8
	제조업	33.9	66.1
	건설업	24.0	76.0
	개인서비스업	64.1	35.9
	사업서비스업	29.5	70.5
	유통서비스업	34.9	65.1
	사회서비스업	45.0	55.0
직종	임원·전문가	21.7	78.3
	사무·판매·서비스직	45.3	54.7
	생산직	44.6	55.4
기업규모	30인 미만	46.5	53.5
	30~99인	25.2	74.8
	100~299인	26.6	73.4
	300인 이상	10.4	89.6
고용형태	비정규직	66.4	33.6
	정규직	21.4	78.6
노조유무	무노조	42.6	57.4
	노조	11.7	88.3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66.4%가 저임금 상태인 반면, 정규직은 21.4%만이 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 유무별로는 유노조기업의 저임금 발생 비율은 11.7%로 매우 낮으나 무노조기업의 경우는 42.6%로 매우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노조의 역할에도 기인하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업에 노조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저임금 고용의 일자리 이행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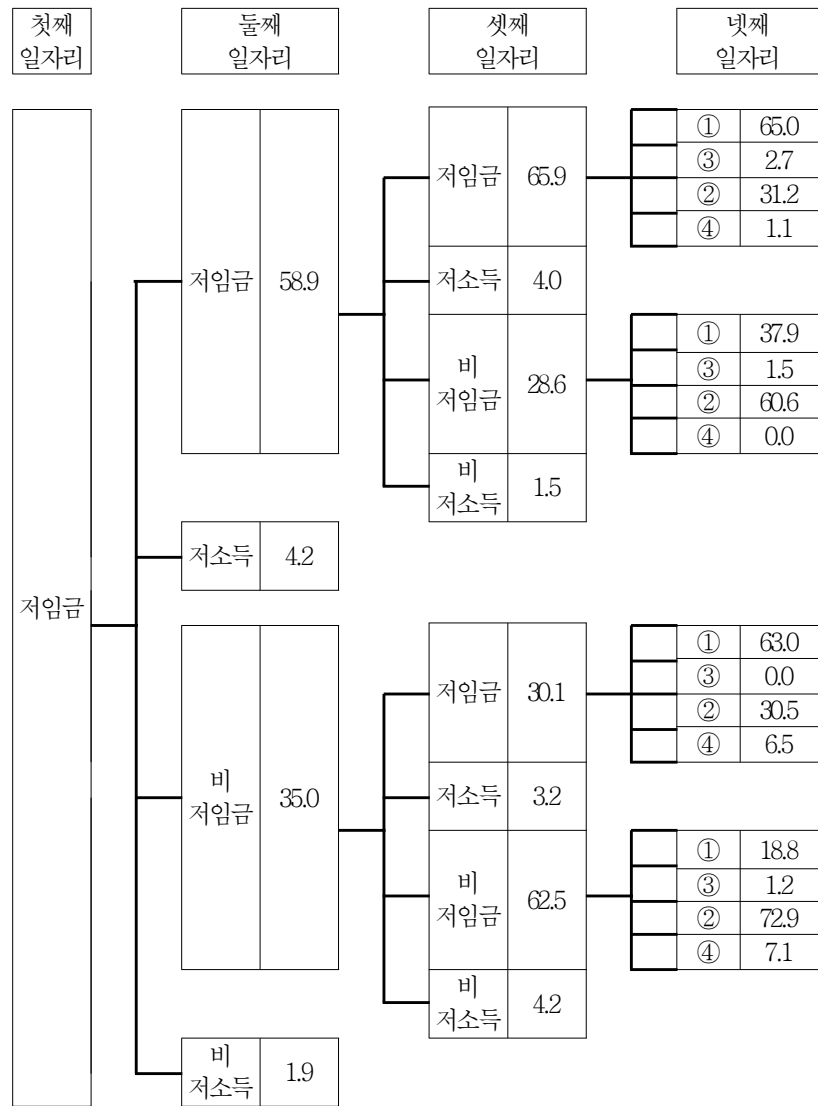
<표 3-4>와 <표 3-5>는 전체 분석기간(1998~2008) 동안 분석자료에서 관찰되는 개별 임금근로자의 첫째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저임금과 비저임금으로 나누어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일자리 이행과정과 다양한 상태간 이행확률을 제시한다.

어떤 일자리에서 저임금(또는 비저임금)근로자는 이어지는 다음 일자리에서 다양한 상태를 경험한다. 이어지는 다음 일자리는 4가지 상태, 즉 저임금(①), 비저임금(②), 자영업 저소득(③), 자영업 비저소득(④)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 분석기간 동안 어떤 일자리를 가졌다가 다음 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 그리고 현재 일자리를 변동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일자리 이행확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되는 일자리 이행확률은 어떤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행한 근로자 가운데 4가지 상태 각각으로 이행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먼저, 분석자료상의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자(표 3-4). 첫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인 근로자 가운데 둘째 자리에서도 저임금일 확률은 58.9%이고 자영업 저소득일 확률은 4.2%이며, 비저임금으로 상향이동할 확률은 35.0%, 자영업 비저소득일 확률은 1.9%로 나타난다. 따라서 첫째 일자리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63.1%가 둘째 자리에서

서도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36.9%가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로 상향이동을 경험한다.

<표 3-4>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1998~2008): 첫째 일자리 저임금



주: ①은 저임금, ②는 비저임금, ③은 저소득(자영업), ④는 비저소득(자영업).

첫째 및 둘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인 근로자(‘저임금→저임금’)의 경우, 셋째 일자리에서 65.9%가 저임금으로, 4.0%가 자영업 저소득으로 이행하여 69.9%가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이행하는데, 이는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이행할 확률(63.1%)보다 6.8%p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다음 일자리로의 이행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를 벗어날 확률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첫째, 둘째 및 셋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인 근로자(‘저임금→저임금→저임금’)가 넷째 일자리로 이행하는 경우, 4가지 상태로의 이행확률은 앞서 제시한 ‘저임금→저임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일자리 저임금, 둘째 일자리 비저임금 및 셋째 일자리 저임금인 근로자(‘저임금→비저임금→저임금’)가 넷째 일자리로 이행하는 경우의 이행확률을 ‘저임금→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가 넷째 일자리로 이행하는 경우와 ‘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가 셋째 일자리로 이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다소 낮지만 이행확률 분포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일자리의 임금지위의 상태가 어떠한지 일단 저임금 일자리로 떨어지면 이후 저임금으로부터 다시 벗어나기가 어려워짐을 시사한다.

첫째 일자리는 저임금이었으나 이후 이행과정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나 비저임금 상태로 상향이동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비저임금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셋째 일자리에서 66.7%가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하며, ‘저임금→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넷째 일자리에서 60.6%가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저임금근로자가 일단 저임금에서 벗어나 비저임금으로 이행하게 되면 이후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비저임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짐을 시사한다.

첫째 일자리는 저임금이었으나 둘째 및 셋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상태로 이행한 경우(‘저임금→비저임금→비저임금’), 넷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0%로 매우 높아진다. 이는

저임금에서 벗어나 일자리 이행에서 비저임금 상태를 유지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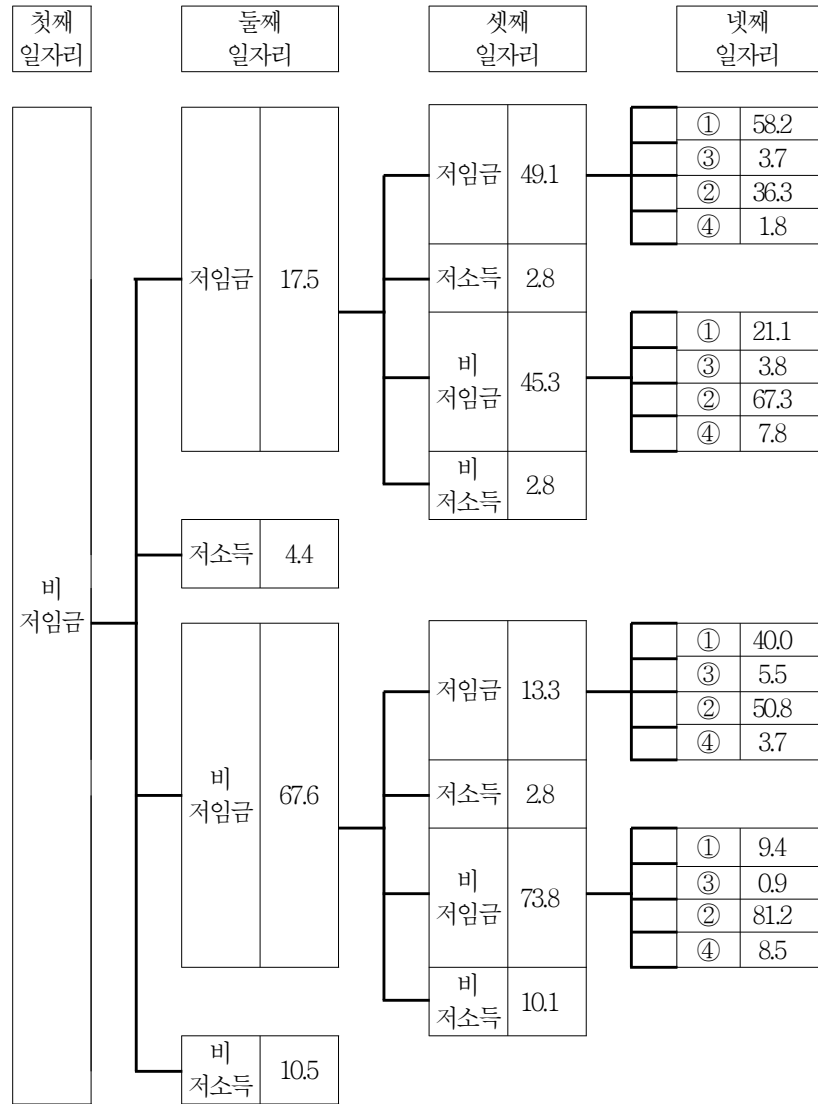
다음으로 <표 3-5>는 첫째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확률을 보여준다. 먼저 첫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둘째 일자리에서 67.6%가 비저임금 상태, 10.5%가 비저소득 상태로 이행하여 총 78.1%가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하며, 21.9%만이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하향이동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큼을 보여준다.

첫째 및 둘째 일자리 모두 비저임금인 근로자(‘비저임금→비저임금’)의 경우 83.9%가 셋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하고, ‘비저임금→비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는 89.7%가 넷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이행에서 비저임금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다음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일자리는 비저임금이었으나 둘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으로 떨어진 근로자(‘비저임금→저임금’)의 경우 51.9%가 셋째 일자리에서 저임금(또는 저소득)에 머물고, ‘비저임금→비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의 45.5%가 넷째 일자리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비저임금근로자라 해도 일단 저임금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이후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분석시기를 두 시기, 즉 1998~2002년(시기 1)과 2003~2008년(시기 2)으로 나누어 두 시기 간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확률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표 3-6). 먼저,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경우 둘째 일자리로의 이행확률 분포가 시기 1(1998~2002)과 시기 2(2003~2008) 사이에 매우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시기 1(시기 2)에서 첫째 일자리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둘째 일자리에서 59.8%(57.4%)가 저임금 상태로, 3.0%(6.2%)가 자영업 저소득 상태로, 35.4%(34.5%)가 비저임금 상태로, 그리고 1.8%(1.9%)가 자영업 비저소득 상태로 이행한다.

<표 3-5>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1998~2008):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주: ①은 저임금, ②는 비저임금, ③은 저소득(자영업), ④는 비저소득(자영업).

‘첫째 일자리 저임금→둘째 일자리 저임금’인 근로자가 셋째 일자리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을 벗어날 확률을 보면, 시기 1에서는 32.5%였으나

<표 3-6>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 시기간 비교

1998 ~ 2002				2003 ~ 2008				
첫째 일자리	둘째 일자리	셋째 일자리		첫째 일자리	둘째 일자리	셋째 일자리		
저임금	저 임금	59.8	①	63.7	저 임금	57.4	①	74.2
			③	3.8			③	4.0
			②	31.1			②	20.2
			④	1.4			④	1.6
	저 소득	3.0	①	28.7	저 소득	6.2	①	36.0
			③	4.0			③	0.0
	비저 임금	35.4	②	63.3	비저 임금	34.5	②	59.3
			④	4.0			④	4.7
			비저 소득	1.8			비저 소득	1.9

주: ①은 저임금, ②는 비저임금, ③은 저소득(자영업), ④는 비저소득(자영업).

시기 2에서는 21.8%로 크게(10.7%p) 낮아진다. 반면, ‘첫째 일자리 저임금→둘째 일자리 비저임금’인 근로자가 셋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를 유지할 확률을 보면, 시기 1에서는 67.3%였으나 시기 2에서는 64.0%로 21.8%로 약간 낮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는 시기 2로 가면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진 반면, 대부분의 경우 시기 1과 시기 2 사이에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확률의 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체 분석시기(1998~2008년)를 두 개의 시기, 즉 1998~2002년(시기 1)과 2003~2008년(시기 2)으로 나누어 비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확률의 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표 3-6). 먼저, 첫째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경우 둘째 자리에서 각 상태로의 이행확률 분포가 시기 1과 시기 2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둘째 일자리 저임금’인 근로자가 셋째 자리로 이행하는 확률의 분포도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첫째 일자



<표 3-7> 비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이행확률: 시기간 비교

1998~2002				2003~2008						
첫째 일자리	둘째 일자리	셋째 일자리		첫째 일자리	둘째 일자리	셋째 일자리				
비 저임금	저 임금 18.8		①	49.1	비 저임금	저 임금 15.0		①	48.8	
			③	2.4				③	4.6	
			②	46.1				②	42.0	
			④	2.4				④	4.6	
	저 소득 4.8				저 소득 3.7					
										①
	비저 임금 66.7			③	3.0	비저 임금 69.0			③	2.3
				②	73.3				②	75.7
				④	10.1				④	10.0
				①	13.6				①	12.0
	비저 소득 9.7				비저 소득 12.3					

주: ①은 저임금, ②는 비저임금, ③은 저소득(자영업), ④는 비저소득(자영업).

리 비저임금→둘째 일자리 비저임금'인 근로자가 셋째 자리로 이행하는 확률의 분포도 두 시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요컨대, 첫째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두 시기 사이에 이행확률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 2003년을 전후로 일자리 이행의 구조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제3절 근로자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

#### 1. 인적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

<표 3-8>은 성, 연령, 학력 등 근로자의 인적특성별로 일자리 이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여성의 경우 둘째 자리에서도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머물 확률은 70.3%

(저임금 66.0%, 저소득 4.3%)로 남성의 그것(47.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의 셋째 일자리 이행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저임금 여성의 경우 저임금 남성에 비해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 고용탈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첫째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둘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으로 떨어질 확률은 높고 비저임금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낮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 탈출 또는 비저임금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일자리 이행확률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으로 상향이동을 경험할 확률은 25세 미만이 46.4%, 25~34세가 47.1%로 비슷하고, 35~54세는 27.0%, 55세 이상은 13.0%로 나타난다.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으로의 상향이동을 통해 저임금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연령별 이행패턴은 ‘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의 셋째 일자리 이행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청년층 저임금 고용의 성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현재의 청년층 저임금은 낮은 연령이나 숙련 등에 따라 발생하지만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을 탈출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하는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성격이 타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강함을 보여준다.

첫째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떨어질 확률은 25~34세가 14.1%로 가장 낮고, 35~54세가 23.9%, 25세 미만이 27.4%이며, 55세 이상은 61.9%로 가장 높다. ‘비저임금→비저임금’인 경우도 셋째 일자리 이행에서 이러한 이행패턴이 기본적으로 관찰된다. 2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저임금 또는 저소득 이행확률이 25~54세 연령층보다 높는데, 이는 청년층의 높은 이직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비저임금으로의 상향이동 확률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저임금에서 벗어날 확률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이행 측면에서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어떤 시점에서 저임금인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을 탈출할 확률은 대체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다음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상태로 떨어질 확률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요컨대, 저학력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 탈출확률이 낮고 비저임금 탈출확률도 높아서 일자리 이행에서 가장 취약한 학력계층임을 보여준다.

〈표 3-8〉 근로자 인적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1998~2008)

다음 일자리 상태		첫째 일자리 저임금				첫째 일자리 저임금 둘째 일자리 저임금				첫째 일자리 저임금 둘째 일자리 비저임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성	여성	66.0	28.4	4.3	1.3	70.1	25.3	2.8	1.6	39.6	52.0	4.2	4.2
	남성	44.0	49.2	3.8	3.1	52.0	39.7	7.6	0.8	19.1	74.6	2.0	4.2
연령	25세 미만	52.7	45.8	1.0	0.6	56.5	40.5	2.7	0.4	22.7	70.1	4.0	3.2
	25~34세	46.2	44.6	6.7	2.5	59.4	30.7	5.5	4.4	23.2	71.9	1.3	3.7
	35~54세	66.8	23.6	6.1	3.4	75.4	19.6	3.4	1.5	45.6	42.6	4.4	7.3
	55세 이상	80.9	11.4	6.2	1.6	82.8	9.4	7.8	0.0	90.9	9.0	0.0	0.0
학력	중학이하	75.7	17.8	5.1	1.3	79.3	15.2	5.6	0.0	44.6	51.1	2.2	2.2
	고교	56.9	36.5	4.2	2.4	63.5	32.1	1.5	2.9	29.7	61.6	4.3	4.3
	전문대	47.4	47.9	2.6	2.1	62.3	32.8	1.6	3.3	25.1	69.2	3.8	1.9
	대학이상	48.8	46.3	3.4	1.5	46.5	47.4	6.3	0.0	18.8	73.4	1.6	6.2
다음 일자리 상태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둘째 일자리 저임금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둘째 일자리 비저임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성	여성	28.4	59.2	5.5	6.9	59.4	34.0	3.8	2.8	24.7	63.8	4.8	6.7
	남성	12.5	71.2	3.9	12.3	39.0	56.1	1.9	2.9	9.5	77.3	2.0	11.1
연령	25미만	25.8	70.8	1.6	1.9	44.4	52.8	1.4	1.4	21.6	70.5	2.4	5.5
	25-34	10.1	75.7	4.0	10.3	50.9	47.0	0.0	2.0	7.6	79.1	2.6	10.7
	35-54	17.6	59.6	6.3	16.6	42.9	42.9	7.9	6.4	15.9	68.7	2.8	12.6
	55이상	55.2	33.1	6.7	5.1	75.0	25.0	0.0	0.0	41.6	50.0	8.4	0.0
학력	중학이하	35.4	51.9	5.8	6.9	52.6	42.1	5.3	0.0	22.6	71.4	2.6	3.4
	고교	16.7	65.8	5.1	12.3	52.8	44.6	1.3	1.3	14.6	73.4	2.2	9.8
	전문대	13.9	75.9	1.7	8.5	35.9	59.9	0.0	4.1	9.2	78.3	4.1	8.3
	대학이상	11.9	74.3	3.0	10.7	40.0	45.0	4.9	10.0	7.5	73.2	2.5	16.8

주: ①은 저임금, ②는 비저임금, ③은 저소득(자영업), ④는 비저소득(자영업).

## 2. 기업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

<표 3-9>는 기업특성별로 일자리 이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정규직 여부별로 비교하면, 첫째 일자리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둘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탈출할 확률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약간 높으나 큰 차이는 없다. ‘저임금→저임금’, ‘비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이라 해도 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저임금에 비해 저임금 탈출확률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첫째 일자리에서 비저임금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저임금을 벗어날 확률은 정규직에 비해 높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낮아서 현재의 비저임금 일자리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정규직에 비해 클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의 저임금 탈출확률을 직종별로 비교하면 생산직종이 30.6%로 가장 낮고, 사무·판매서비스직종이 39.7%, 임원·전문가직종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행패턴의 직종별 차이는 ‘저임금→저임금’인 경우에도 그대로 관찰된다. 한편,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에 빠질 확률은 생산직종이 가장 높고, 사무·판매서비스직종, 임원·전문가직종이 그 뒤를 잇는다. ‘비저임금→비저임금’인 경우 저임금으로 빠질 확률은 임원·전문가직종이 가장 낮고, 사무·판매서비스직종이 가장 높다.

산업별로는 첫째 일자리 저임금근로자의 저임금 탈출확률은 건설업이 가장 높고, 유통서비스업이 뒤를 이으며, 다음으로 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가 비슷하고, 제조업이 가장 낮다. ‘저임금→저임금’인 경우는 사회서비스업 근로자의 저임금 탈출확률이 가장 낮은 사실을 제외하면, 첫째 일자리 저임금근로자의 이행패턴과 대체로 비슷하다. 한편,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근로자가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에 빠질 확률은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유통서비스업이 가장 낮으나,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산업간 차이가 크지 않다. ‘비저임금→비저임금’인 경우 다음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로 빠질 확률은 사회서비스업과 사

업서비스업에서 10% 수준으로 가장 낮고, 나머지 산업들은 15% 전후로 비슷한 이행확률을 보여준다.

<표 3-9> 기업특성별 일자리 이행확률(1998~2008)

다음 일자리 상태		첫째 일자리 저임금				첫째 일자리 저임금 둘째 일자리 저임금				첫째 일자리 저임금 둘째 일자리 비저임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고용 형태	비정규직	60.0	34.6	4.0	1.4	65.4	28.8	4.8	1.0	32.7	59.6	3.2	4.4
	정규직	55.0	37.1	5.1	2.8	67.3	27.3	3.3	2.1	31.5	59.2	3.7	5.6
직종	임원·전문가	45.4	45.8	6.1	2.7	47.4	42.1	8.8	1.7	23.9	72.0	4.0	0.0
	사무·판매서비스	56.9	38.0	3.4	1.7	63.6	31.6	3.3	1.6	31.9	60.1	3.7	4.4
	생산직	65.1	28.8	4.4	1.8	72.3	23.2	3.4	1.2	31.0	61.3	2.4	5.4
산업	제조업	64.0	31.1	3.8	1.2	71.2	23.1	3.6	2.1	20.5	69.9	2.8	6.8
	건설업	46.5	48.9	4.6	0.0	50.1	40.0	5.0	5.0	18.2	77.3	0.0	4.6
	개인서비스	59.7	35.7	2.8	1.8	62.2	33.9	3.1	0.7	37.8	52.5	4.8	4.8
	사업서비스	60.1	33.6	3.1	3.1	56.9	33.4	7.8	1.9	35.7	64.3	0.0	0.0
	유통서비스	52.4	38.4	6.2	3.1	61.6	34.9	1.1	2.4	38.1	54.0	3.2	4.8
	사회서비스	59.1	35.0	4.0	1.8	74.3	22.0	3.8	0.0	24.6	69.2	4.6	1.6
다음 일자리 상태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둘째 일자리 저임금				첫째 일자리 비저임금 둘째 일자리 비저임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고용 형태	비정규직	28.0	69.5	5.2	7.3	47.1	44.2	2.9	5.8	22.6	70.4	2.0	4.9
	정규직	14.6	69.3	4.3	12.0	48.2	48.2	2.8	0.9	10.2	75.6	2.8	11.4
직종	임원·전문가	11.2	73.4	4.5	11.0	51.5	34.4	2.7	11.4	10.0	71.3	4.0	14.7
	사무·판매서비스	18.2	66.8	4.4	10.6	48.6	48.6	2.9	0.0	16.3	68.0	4.1	11.6
	생산직	21.7	63.9	4.3	10.1	48.6	46.6	2.9	1.9	13.4	79.4	1.1	6.1
산업	제조업	18.6	66.3	3.4	11.7	49.1	50.9	0.0	0.0	14.0	77.0	1.7	7.3
	건설업	19.3	67.5	4.3	8.8	31.9	68.1	0.0	0.0	13.2	77.8	0.9	8.1
	개인서비스	21.5	66.3	5.0	7.2	56.5	34.7	8.8	0.0	15.5	71.2	2.2	11.1
	사업서비스	16.3	71.0	4.9	7.8	56.2	40.6	0.0	3.1	8.9	78.6	1.8	10.7
	유통서비스	15.2	65.6	4.6	14.6	43.5	47.8	4.3	4.3	12.2	69.3	4.0	14.5
	사회서비스	16.3	71.0	4.9	7.8	56.2	40.6	0.0	3.1	8.9	78.6	1.8	10.7

주: ①은 저임금, ②는 비저임금, ③은 저소득(자영업), ④는 비저소득(자영업).

#### 제4절 일자리 이행과정 및 주요 변수의 변화

개별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또는 개인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며, 이직 이후 직업탐색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생애에 걸쳐 이러한 노동시장 이행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직업력의 취업 시기와 이직 시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일련의 일자리들이 지속된 기간(job spell),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사이의 기간, 즉 미취업기간(non-job spell)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2개의 일자리 사이에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직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 구분 없이 이들 상태들을 모두 포함하는 미취업기간을 분석한다.

어떤 근로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  $n$ 번의 일자리를 경험하였다고 하자.  $i$ 번째 일자리를  $jobspi(i=1, 2, \dots, n)$ 라고 하고,  $i$ 번째 일자리( $jobspi$ )와  $i+1$ 번째 일자리( $jobspi+1$ ) 사이에 존재하는 미취업기간을  $i$ 번째 미취업기간( $njobspi$ )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어떤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경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jobsp1 \Rightarrow njobsp1 \Rightarrow jobsp2 \Rightarrow njobsp2 \Rightarrow \dots \Rightarrow njobspn-1 \Rightarrow jobspn$$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가 매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새로운 일자리로 이행할 때까지 미취업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행과정에서 임금수준, 저임금 비율, 고용형태 등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평균적인 이행과정을 살펴본다.

<표 3-10>은 어떤 일자리에서 저임금인 근로자와 비저임금인 근로자를 구분하여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일자리기간, 미취업기간, 저임금 비율,

실질임금, 정규직 비율, 산업내 이동, 직종내 이동 등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횟수가 동일한 몇 가지 표본(2회, 3회, 4회)을 구성한 다음 첫 번째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의 저임금 여부별로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저임금 및 비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 기간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경우, 일자리 횟수별 표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첫 번째 일자리(jobsp1)에서 이직을 경험한 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후 일자리·미취업횟수가 늘어나면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첫 번째 일자리 비저임금의 경우는 대체로 첫 번째 일자리에서 이직을 경험한 후 큰 폭으로 감소하나, 이후 일자리·미취업횟수가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두 번째 일자리(jobsp2) 기준으로 보면, 저임금과 비저임금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어지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일자리 기간 증가를 경험하지만, 일자리 기간의 절대수준에서는 저임금근로자가 비저임금근로자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기간 측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취업기간은 저임금 및 비저임금 근로자 공히 첫 번째 미취업기간(njobsp1)을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미취업횟수가 늘어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미취업기간이 비저임금근로자보다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이행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 일자리(jobsp2) 기준으로 보아도 대체로 관찰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저임금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비저임금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직업탐색의 어려움 등으로 미취업기간이 길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보여준다.

실질임금의 변화를 보면, 거의 모든 경우 다음 일자리로 이행하면서 실질임금 상승을 경험한다. 그러나 일자리간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실질임금 상승 정도가 더욱 작아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실질임금의 상승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 비율을 보면, 첫 번째 또는 두

<표 3-10> 일자리횟수 표본별 일자리 이행과정과 주요 변수의 변화(첫째 일자리 기준)

	일자리 횟수	일자리/ 미취업	기간 (일)	연령 (년)	실질 임금	저임금 비율	정규직 비율	동일직 종 이동	동일산업 이동
전 체	2회	jobsp1	934.0	34.3	109.9	0.43	0.59		
		njobsp1	441.3	35.5				0.41	0.49
		jobsp2	982.8	38.2	135.7	0.38	0.61		
	3회	jobsp1	744.1	31.7	93.4	0.52	0.56		
		njobsp1	334.8	32.6				0.39	0.42
		jobsp2	590.0	34.3	109.3	0.44	0.59		
		njobsp2	309.4	35.1				0.44	0.50
	4회	jobsp3	831.6	37.4	131.6	0.39	0.64		
		jobsp1	672.9	32.7	93.7	0.44	0.59		
		njobsp1	269.1	33.5				0.47	0.48
		jobsp2	492.5	34.8	104.2	0.42	0.58		
		njobsp2	236.6	35.5				0.43	0.49
jobsp3		529.4	36.9	121.6	0.41	0.61			
njobsp3		206.6	37.5				0.47	0.52	
첫 째 일 자 리 저 임 금	2회	jobsp4	663.6	39.3	137.8	0.32	0.60		
		jobsp1	601.5	34.8	59.7	1.00	0.36		
		njobsp1	565.2	36.4				0.39	0.44
	3회	jobsp2	836.5	38.7	94.5	0.61	0.46		
		jobsp1	478.1	30.8	56.7	1.00	0.34		
		njobsp1	400.1	31.9				0.36	0.36
		jobsp2	524.8	33.3	82.8	0.64	0.48		
	4회	njobsp2	357.7	34.3				0.42	0.45
		jobsp3	773.3	36.4	105.0	0.51	0.57		
		jobsp1	467.9	32.7	56.2	1.00	0.42		
		njobsp1	302.3	33.5				0.50	0.48
		jobsp2	477.5	34.8	77.2	0.69	0.49		
njobsp2		288.8	35.6				0.43	0.54	
jobsp3		525.8	37.0	93.6	0.61	0.52			
첫 째 일 자 리 비 저 임 금	2회	njobsp3	211.6	37.6				0.53	0.56
		jobsp4	561.2	39.2	106.7	0.48	0.58		
		jobsp1	1194.2	33.9	148.3	0.00	0.76		
	3회	njobsp1	342.6	34.9				0.42	0.53
		jobsp2	1092.5	37.9	167.3	0.20	0.72		
		jobsp1	1086.6	32.8	133.3	0.00	0.80		
		njobsp1	263.0	33.5				0.43	0.49
	4회	jobsp2	661.5	35.3	138.0	0.22	0.70		
		njobsp2	257.3	36.1				0.46	0.55
		jobsp3	897.3	38.5	160.4	0.25	0.71		
		jobsp1	844.1	32.9	123.6	0.00	0.73		
		njobsp1	245.6	33.6				0.46	0.49
jobsp2		503.9	34.9	125.9	0.21	0.66			
njobsp2		196.5	35.5				0.44	0.45	
	jobsp3	531.5	36.9	144.0	0.25	0.68			
	njobsp3	197.6	37.5				0.43	0.49	
	jobsp4	747.5	39.5	163.2	0.20	0.62			



〈표 3-11〉 일자리횟수 표본별 일자리 이행과정과 주요 변수의 변화(둘째 일자리 기준)

	일자리 횟수	일자리/ 미취업	기간 (일)	연령 (년)	실질 임금	저임금 비율	정규직 비율	동일직 종이동	동일산 업이동
둘째 일자리 저임금	3회	jobsp2	479.9	35.8	64.6	1.00	0.36		
		njobsp2	365.3	36.8				0.43	0.45
		jobsp3	821.7	39.1	95.9	0.62	0.51		
	4회	jobsp2	402.2	35.6	62.6	1.00	0.34		
		njobsp2	283.1	36.4				0.43	0.43
		jobsp3	505.1	37.8	88.2	0.66	0.49		
		njobsp3	230.7	38.4				0.52	0.54
	jobsp4	518.5	39.8	106.0	0.47	0.52			
둘째 일자리 비 저임금	3회	jobsp2	678.6	32.9	144.4	0	0.76		
		njobsp2	266.7	33.7				0.45	0.53
		jobsp3	838.4	36.0	159.5	0.20	0.74		
	4회	jobsp2	559.8	34.2	134.4	0	0.75		
		njobsp2	203.6	34.7				0.44	0.54
		jobsp3	547.8	36.2	145.8	0.24	0.69		
		njobsp3	189.5	36.7				0.44	0.51
	jobsp4	753.4	38.8	160.5	0.22	0.65			

번째 일자리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어지는 일자리에서 상당한 정도로 저임금 비율이 낮아진다. 반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일자리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저임금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정규직 비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어지는 일자리에서 상당 정도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반대로 정규직 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어지는 일자리에서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상당 정도가 상향이동을, 비저임금근로자의 상당 정도는 하향이동을 경험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직종 이동, 동일산업 이동 비율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임금근로자와 비저임금근로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 제5절 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앞서 논의하였듯이 근로자는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저임금 일자리로 오가는 ‘회전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여기서는 멀티 에피소드(multi-episode) 분석을 통해 어떤 시점에서 저임금이었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이탈한 후 미취업 기간을 거친 다음 다시 저임금 상태로 이행하는 복수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저임금→저임금’ 이행과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이라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로짓모형과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 3-12>와 <표 3-13>은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3-12>는 분석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자리 이행을 포괄하는 전체 표본을,<sup>10)</sup> <표 3-13>은 분석 기간 동안 관찰된 개별 근로자의 첫 번째 일자리→두 번째 일자리 이행만을 포함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표 3-12>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이행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행 직전 일자리가 비상용직인 경우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근로자 인적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저임금→저임금’ 이행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가직종이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이 가장 낮고 다음이 사무·판매·서비스직종이며, 생산직종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이 가장 낮으나, 나머지 산업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추정모형에서 공히 관찰된다.

10) 근로자가 복수의 일자리 이행을 경험한 경우 각각 하나의 관측치를 구성한다.

〈표 3-12〉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전체 표본

	로짓모형 1			로짓모형 2			선형확률모형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2.080	0.490***		4.266	0.491***		1.299	0.089***
남성	-0.917	0.100***	0.400	-0.981	0.103***	0.375	-0.206	0.021***
고등학교	-0.228	0.122*	0.796	-0.274	0.119**	0.760	-0.049	0.023**
전문대학	-0.322	0.166**	0.725	-0.402	0.164**	0.669	-0.082	0.034**
대학교 이상	-0.539	0.158***	0.583	-0.622	0.156***	0.537	-0.130	0.033***
연령	0.031	0.004***	1.031					
25세 미만				-1.514	0.209***	0.220	-0.265	0.037***
25~34세				-1.378	0.209***	0.252	-0.235	0.037***
35~54세				-1.084	0.191***	0.338	-0.166	0.031***
실질임금	-0.428	0.113***	0.652	-0.387	0.113***	0.679	-0.072	0.022***
관리·전문가	-0.406	0.165**	0.666	-0.407	0.165**	0.666	-0.083	0.034**
사무·판매·서비스직	-0.197	0.126	0.821	-0.219	0.125*	0.803	-0.040	0.025
농·광업	0.301	0.653	1.351	0.215	0.661	1.240	-0.035	0.090
건설업	-0.777	0.200***	0.460	-0.755	0.201***	0.470	-0.156	0.042***
사업서비스업	-0.011	0.175	0.989	-0.061	0.176	0.941	-0.001	0.035
유통서비스업	-0.128	0.154	0.880	-0.123	0.153	0.884	-0.024	0.031
개인서비스업	-0.146	0.152	0.864	-0.162	0.152	0.851	-0.032	0.030
사회서비스업	0.031	0.151	1.031	0.008	0.151	1.008	0.000	0.030
상용직	-0.168	0.097*	0.846	-0.187	0.097*	0.830	-0.036	0.020*
-2LL	3619.1							
Adj-R <sup>2</sup>							0.123	
관측치	276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첫 번째→두 번째 일자리 이행만을 포함하는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 (표 3-13)는 대체로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표 3-12>와는 달리 25세 미만 연령층이 25~34세 연령층에 비해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이 약간 높고, 상용직 더미의 경우도 추정치가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로짓모형 1			로짓모형 2			선형확률모형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2.755	0.683***		5.249	0.687***		1.461	0.120***
남성	-0.946	0.140***	0.388	-1.009	0.144***	0.365	-0.211	0.029***
고등학교	-0.320	0.177*	0.726	-0.327	0.174*	0.721	-0.056	0.034*
전문대학	-0.330	0.229	0.719	-0.387	0.229*	0.679	-0.075	0.048
대학교 이상	-0.445	0.219**	0.641	-0.487	0.220**	0.614	-0.093	0.046**
연령	0.032	0.006***	1.033					
25세 미만				-1.645	0.307***	0.193	-0.279	0.053***
25-34세				-1.843	0.315***	0.158	-0.322	0.054***
35-54세				-1.199	0.289***	0.301	-0.178	0.046***
실질임금	-0.595	0.156***	0.551	-0.586	0.156***	0.557	-0.108	0.029***
관리·전문가	-0.629	0.234***	0.533	-0.619	0.235***	0.539	-0.133	0.048***
사무·판매·서비스직	-0.263	0.180	0.768	-0.299	0.180*	0.741	-0.059	0.036*
농·광업	-0.038	0.846	0.963	-0.197	0.869	0.822	-0.093	0.123
건설업	-0.888	0.297***	0.411	-0.886	0.303***	0.412	-0.176	0.062***
사업서비스업	-0.185	0.242	0.831	-0.278	0.245	0.757	-0.043	0.049
유통서비스업	-0.119	0.216	0.888	-0.128	0.217	0.880	-0.022	0.044
개인서비스업	-0.116	0.208	0.891	-0.178	0.209	0.837	-0.029	0.042
사회서비스업	-0.042	0.206	0.959	-0.077	0.206	0.926	-0.011	0.041
상용직	-0.066	0.138	0.936	-0.033	0.139	0.967	-0.004	0.028
-2LL	1900.8							
Adj-R <sup>2</sup>							0.138	
관측치	1428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다음으로 <표 3-14>와 <표 3-15>에 제시된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저임금→저임금'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표 3-14>에 따르면, 이행 직전 일자리의 임금수준과 상용직 여부는 '비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여준다. 인적특성별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저임금에서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비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정년 등을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도 다시 고임금의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표 3-14〉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전체 표본

	로짓모형 1			로짓모형 2			선형확률모형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7.584	0.825***		10.05	0.867***		1.740	0.099***
남성	-1.049	0.109***	0.350	-1.129	0.111***	0.324	-0.173	0.015***
고등학교	-0.162	0.115	0.850	-0.211	0.115*	0.810	-0.041	0.017**
전문대학	-0.413	0.172**	0.662	-0.540	0.171***	0.583	-0.081	0.022***
대학교 이상	-0.258	0.158*	0.773	-0.346	0.157**	0.708	-0.049	0.021**
연령	0.040	0.005***	1.041					
25세 미만				-2.055	0.214***	0.128	-0.411	0.034***
25~34세				-2.217	0.196***	0.109	-0.428	0.031***
35~54세				-1.820	0.189***	0.162	-0.365	0.031***
실질임금	-1.892	0.177***	0.151	-1.693	0.180***	0.184	-0.189	0.020***
관리·전문가	-0.428	0.159***	0.652	-0.432	0.161***	0.649	-0.043	0.020**
사무·판매·서비스직	-0.276	0.133**	0.759	-0.300	0.135**	0.741	-0.030	0.018*
농·광업	-0.612	0.489	0.542	-0.546	0.514	0.580	-0.074	0.063
건설업	-0.125	0.165	0.882	-0.179	0.169	0.836	-0.032	0.022
사업서비스업	0.159	0.163	1.173	0.090	0.167	1.094	0.011	0.022
유통서비스업	0.130	0.144	1.139	0.079	0.146	1.082	0.005	0.020
개인서비스업	-0.202	0.162	0.817	-0.168	0.161	0.845	-0.021	0.023
사회서비스업	0.099	0.169	1.105	-0.006	0.170	0.994	-0.014	0.023
상용직	-0.374	0.105***	0.688	-0.367	0.107***	0.693	-0.058	0.016***
-2LL	3706.3							
Adj-R <sup>2</sup>							0.153	
관측치	3,647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는 ‘저임금→저임금’ 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리·전문가직 종의 ‘비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이 가장 낮고 생산직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임금으로의 이행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행 직전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상관 없이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직종일수록, 그리고 비상용직일수록 이직 후 미취업상태를 거친 다음 새로운 일자리로 이행할 때 저임

<표 3-15>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로짓모형 1			로짓모형 2			선형확률모형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6.173	1.107***		8.685	1.177***		1.643	0.139***
남성	-1.112	0.156***	0.329	-1.191	0.159***	0.304	-0.183	0.022***
고등학교	-0.187	0.165	0.829	-0.240	0.167	0.787	-0.047	0.025*
전문대학	-0.309	0.239	0.734	-0.479	0.240**	0.619	-0.076	0.033**
대학교 이상	-0.250	0.216	0.779	-0.328	0.216	0.721	-0.049	0.029*
연령	0.043	0.006***	1.044					
25세 미만				-2.158	0.292***	0.116	-0.435	0.046***
25-34세				-2.564	0.277***	0.077	-0.483	0.043***
35-54세				-1.992	0.267***	0.136	-0.400	0.043***
실질임금	-1.546	0.240***	0.213	-1.311	0.246***	0.270	-0.151	0.029***
관리·전문가	-0.455	0.220**	0.634	-0.436	0.223**	0.647	-0.053	0.029*
사무·판매·서비스직	-0.381	0.191**	0.683	-0.393	0.194**	0.675	-0.050	0.026*
농·광업	-1.065	0.709	0.345	-1.233	0.778	0.292	-0.166	0.093*
건설업	-0.111	0.235	0.895	-0.150	0.242	0.861	-0.031	0.033
사업서비스업	-0.050	0.228	0.952	-0.102	0.235	0.903	-0.014	0.031
유통서비스업	0.011	0.203	1.011	-0.007	0.207	0.994	-0.009	0.028
개인서비스업	-0.387	0.247	0.679	-0.344	0.246	0.709	-0.049	0.035
사회서비스업	-0.215	0.232	0.807	-0.305	0.237	0.737	-0.055	0.033*
상용직	-0.495	0.152***	0.610	-0.442	0.155***	0.643	-0.076	0.024***
-2LL	1800.7							
Adj-R <sup>2</sup>							0.168	
관측치	1,72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가리킴.

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제6절 미취업 및 취업 탈출확률 분석

앞에서는 멀티 에피소드(multi-episode) 분석을 통해 어떤 시점에서 저임금(또는 비저임금)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이탈한 후 미취업기간을 거친 다음 저임금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어떤 시점에서 취업 또는 미취업 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근로자집단, 특히 저임금과 비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sup>11)</sup> 이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Kaplan-Meier(KM) 모델을 사용하여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추정하고, 이어서 Cox 해저드 분석을 통해 취업 또는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 1. 미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먼저, [그림 3-1]은 KM모델을 사용하여 추정된 생존함수가 저임금과 비저임금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먼저 중위 탈출누적률에서의 미취업기간은 저임금이 7개월로 비저임금(5개월)보다 길다. 즉 실직 직전에 저임금(비저임금)이었던 미취업자가 7개월(5개월) 또는 그 이상 미취업상태로 머물 확률이 50%라는 것이다. 평균 미취업기간은 저임금이 17.3개월로 비저임금(11.7개월)보다 상당히 길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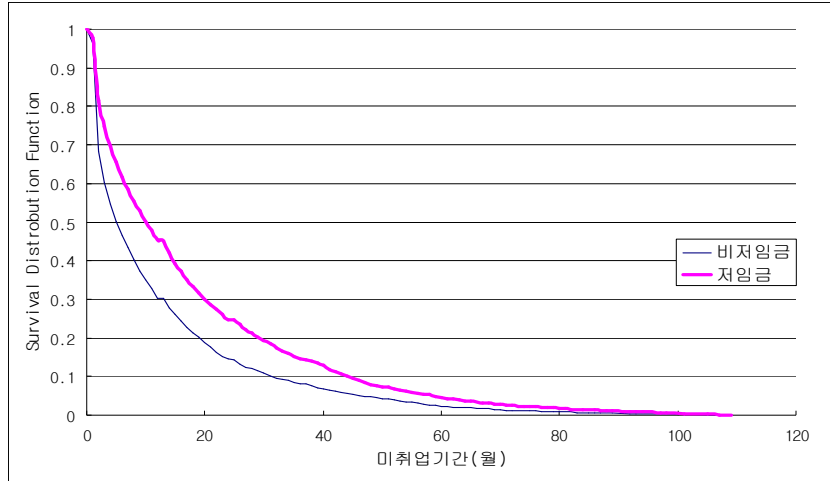
실직 직전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와 비저임금인 근로자의 미취업상태 생존함수를 비교하면, 모든 미취업기간에서 저임금의 생존확률곡선이 비저임금보다 상위에 위치하는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저임금근로자에 비해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 탈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취업상태 생존함수의 동일 여부(equality)에 대한 검정 결과는 모두 저임금과 비저임금 근로자의 생존함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3-16>는 Cox 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미취업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자연로그로 표현되는 미취업 해저드이며, 설명변수로는 연령, 성, 학력, 상용직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저임금 여부 및 월평균 임금, 직종, 산

11) 이러한 싱글 에피소드(single-episode) 분석은 제5절의 멀티 에피소드 분석과는 달리 취업(또는 미취업) 탈출 여부에 대한 분석일 뿐 탈출 이후의 상태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2) 그러나 마지막 관측치가 우측 절단되기 때문에 평균의 추정치는 편의(biased)를 가지게 된다.

[그림 3-1]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함수 비교



	observation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비저임금	5293	16.5%	15.0	5.0	1.0	11.7	235.3	296.5	307.4
저임금	4220	27.7%	24.0	10.0	3.0	17.3	(<.0001)	(<.0001)	(<.0001)

업, 미취업기간 직전의 일자리 기간 등을 포함한다. 연령 변수의 경우 미취업 시점의 연령으로 측정되며, 연령 더미변수를 사용하는 분석도 병행한다. 월평균 임금은 미취업 직전 일자리의 실질 월평균 임금(자연로그)으로, 일자리 기간은 미취업 직전 일자리의 근속기간(자연로그)으로 측정된다. 상용직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직종, 산업 등의 설명변수는 미취업 직전 일자리에서의 정보로서 모두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인 저임금 여부 또는 임금수준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저임금 더미변수의 추정 결과는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의미하게 나타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저임금 더미변수 대신 월평균 임금(자연로그) 변수를 사용한 모형2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와 부합한다.



〈표 3-16〉 미취업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 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남성	0.291	0.028	1.338	0.220	0.029	1.246	0.286	0.028	1.331
고등학교	0.025	0.034*	1.026	0.029	0.034*	1.030	0.054	0.033*	1.055
전문대학	-0.027	0.047*	0.973	-0.030	0.047*	0.970	0.009	0.046*	1.009
대학교 이상	-0.052	0.043*	0.949	-0.064	0.043*	0.938	-0.013	0.042*	0.987
연령	0.032	0.007	1.064	0.050	0.007	1.051			
연령제곱	-0.001	0.000	0.999	-0.001	0.000	0.999			
25세 미만							0.421	0.030	1.524
25~34세							0.306	0.054	1.358
35~54세							0.492	0.050	1.635
저임금 고용	-0.114	0.030	0.893				-0.150	0.030	0.861
월평균 임금				0.286	0.029	1.331			
관리전문가	-0.015	0.041*	0.985	-0.071	0.041	0.931	-0.004	0.040*	0.996
사무판매서비스직	-0.132	0.035	0.876	-0.164	0.035	0.849	-0.131	0.035	0.877
농광업	0.250	0.126	1.283	0.270	0.125	1.310	0.217	0.126	1.242
건설업	0.116	0.049	1.123	0.070	0.050*	1.073	0.120	0.049	1.128
사업서비스업	0.013	0.046*	1.013	-0.003	0.046*	0.997	0.018	0.046*	1.018
유통서비스업	0.022	0.041*	1.023	0.014	0.041*	1.014	0.030	0.041*	1.030
개인서비스업	0.132	0.044	1.141	0.135	0.044	1.145	0.119	0.044	1.127
사회서비스업	-0.007	0.045*	0.993	-0.002	0.045*	0.998	0.003	0.045*	1.003
정규직	0.127	0.040	1.135	0.097	0.040	1.102	0.135	0.040	1.145
상용직	0.032	0.041*	1.033	-0.001	0.041*	0.999	0.054	0.041*	1.056
고용보험 가입	0.030	0.030*	1.030	-0.018	0.030*	0.982	0.032	0.030*	1.033
직전 일자리 기간	0.021	0.012	1.021	0.010	0.012*	1.010	0.028	0.012	1.028
-2TL		105,752			105,714			105,752	
관측치(우측 절단)					8384(22.3%)				

주: \*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가리킴.

다음으로 근로자의 인적특성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자. 남성의 경우 양(+)의 계수값을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에 비해 전문대와 대학교 이상은 상대적으로 미취업 탈출확률이 약간 낮고 고교는 약간 높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간 미취업 탈출확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모형1에서 보듯이 연령 변수는 양(+)의 계수값을, 연령제곱은 음(-)의 계수값으로 추정되어 연령에 대한 미취업 탈

탈출확률이 역U자형 형태를 가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미취업 탈출확률이 증가하다가 38세 전후 중년층에서 가장 높게 되고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가짐을 의미한다. 연령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형 3의 추정 결과를 보면, 35~54세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세 미만, 25~34세, 55세 이상 순으로 뒤를 잇는다. 25세 미만과 25~34세 사이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대한 미취업 탈출확률이 역U자형 형태를 가진다는 분석 결과와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이전 일자리에서 정규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경험자보다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는데, 이는 일단 비정규직에 종사하면 이후 노동시장 이행에서 직장탐색의 어려움, 상향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미취업기간이 길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이전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일자리에서의 상용직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예상대로 양(+)의 값을 보여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만 이들 변수들의 추정치가 일관되게 양(+)의 값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더미변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음(-)의 부호를 보이나 모형 1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1을 중심으로 보면, 관리직·전문가와 사무·판매서비스 직종은 비슷한 음(-)의 추정치를 보여주며, 생산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산업별로는 대부분의 비제조업에서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건설업,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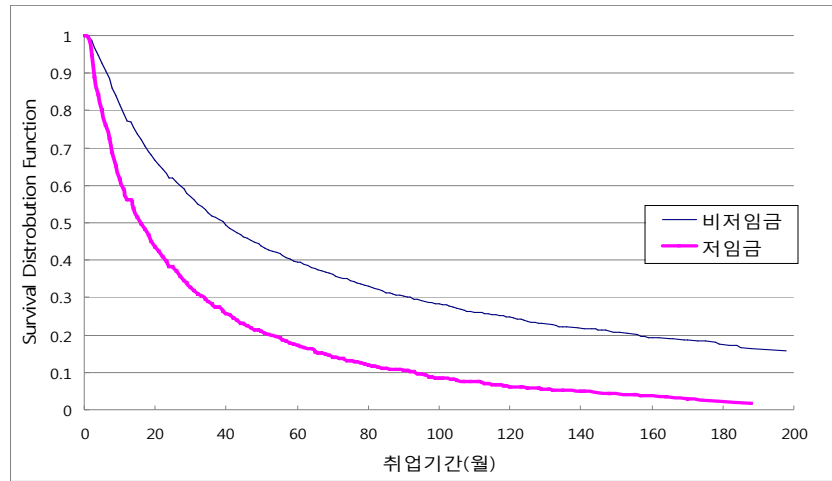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근로자, 55세 이상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경험, 제조업, 비생산직종, 비정규직일수록 미취업기간 동안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2. 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그림 3-2]는 추정된 취업상태 생존함수가 저임금과 비저임금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먼저 중위 탈출누적률에서 취업기간은 저임금이 16개월로 비저임금(39개월)보다 매우 짧다. 또한 평균 취업기간은 저임금이 33.5개월로 비저임금(70.9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현재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와 비저임금인 근로자의 취업상태 생존함수를 비교하면, 모든 취업기간에서 저임금의 생존확률 곡선이 비저임금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저임금근로자에 비해 어떤 시점에서 취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17), 먼저 저임금근로자는 비저임금근로자에 비해 취업 탈출확률이 매우 큰 것으로

[그림 3-2]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함수 비교



	observation		quartile estimate			mean	equality test(chi-square)		
	total	censored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비저임금	9225	43.2%	118.0	39.0	14.0	70.9	1165.2	1133.3	1522.9
저임금	5761	27.7%	41.0	16.0	6.0	33.5	(<.0001)	(<.0001)	(<.0001)

나타난다. 저임금 여부 더미변수 대신 월평균 임금(자연로그) 변수를 사용한 모형 2의 추정 결과 또한 이에 부합하는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탈출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연령의 경우 음(-)의 값을, 연령제곱은 양(+)의 값을 나타내어 연령에 대한 취업 탈출확률은 U자 곡선의 형태를 보여준다. 즉, 처음에는 연령이 늘어나면서 취업 탈출확률이 감소하다가 57세 전후 연령에서 최저점에 도달한 다음 이후 다시 취업 탈출확률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연령 계층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형 3에서도 추정 결과는 이와 부합한다. 성별로는 모형에 따라 계수값의 부호가 다르고 통계적 유의도 또한 낮아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 탈출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학력더미변수의 경우 대부분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된다. 전문대의 취업 탈출확률이 대학교 이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 탈출확률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저학력자의 경우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고학력자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정규직과 상용직의 경우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취업 탈출확률이 낮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우월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를 보면, 노조 가입일수록 취업 탈출확률이 현저하게 낮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의 고용안정성 확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가와 사무·판매·서비스 직종의 취업 이탈확률은 대체로 비슷하고, 모형에 따라 10% 유의수준에서 생산직종보다 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 농광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모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근로자, 청년층, 저학력층,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무노조 사업장, 생산직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취업상태에서 이탈한 위험이 높아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7> 취업 탈출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남성	-0.035	0.027*	0.965	0.089	0.027	1.033	-0.018	0.027*	0.982
고등학교	-0.151	0.032	0.860	-0.120	0.032	0.887	-0.077	0.031	0.926
전문대학	-0.273	0.044	0.761	-0.234	0.044	0.791	-0.178	0.044	0.837
대학교 이상	-0.228	0.041	0.796	-0.166	0.041	0.847	-0.144	0.041	0.866
연령	-0.141	0.006	0.868	-0.110	0.006	0.896			
연령제곱	0.001	0.000	1.001	0.001	0.000	1.001			
25세 미만							1.427	0.051	4.164
25~34세							0.620	0.047	1.859
35~54세							0.100	0.043	1.105
저임금 고용	0.308	0.029	1.360				0.279	0.029	1.322
월평균 임금				-0.556	0.024	0.573			
관리전문가	-0.110	0.040	0.896	-0.041	0.040*	0.930	-0.064	0.040*	0.938
사무·판매서비스직	-0.091	0.033	0.913	-0.036	0.033*	0.964	-0.050	0.033*	0.952
농·광업	-0.255	0.116	0.775	-0.289	0.115	0.749	-0.187	0.114*	0.830
건설업	-0.237	0.049	0.789	-0.132	0.049	0.876	-0.291	0.049	0.748
사업서비스업	-0.104	0.043	0.901	-0.052	0.043*	0.950	-0.115	0.043	0.891
유통서비스업	0.033	0.039*	1.033	0.042	0.039*	1.043	0.023	0.039*	1.023
개인서비스업	0.030	0.041*	1.031	0.033	0.041*	1.034	0.006	0.041*	1.006
사회서비스업	-0.193	0.042	0.824	-0.163	0.042	0.850	-0.194	0.042	0.823
정규직	-0.132	0.037	0.876	-0.039	0.038	0.934	-0.115	0.037	0.891
상용직	-0.420	0.038	0.657	-0.323	0.039	0.724	-0.416	0.038	0.660
고용보험 가입	-0.415	0.029	0.661	-0.339	0.029	0.713	-0.424	0.029	0.654
노동조합	-0.734	0.048	0.480	-0.633	0.048	0.531	-0.730	0.048	0.482
-2LL		129,111			129,057			129,111	
관측치(우측절단)					12635(41.3%)				

주: \*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가리킴.

## 제7절 소 결

본장에서는 근로자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직업력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수준을 저임금과 비저임금으로 나눈 다음 이어지는 일련의 일자리 이행과정과 이행확률, 취업·미취업상태 탈출확률 및 결정요인, 그리고 복수의 일자리를 포함하는 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1998~2008) 동안 관찰되는 첫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63.1%가 계속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에 머무는 반면, 나머지 36.9%는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로 상향이동 한다. 첫째 및 둘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30.1%가 셋째 일자리에서 상향이동을 경험하여 저임금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저임금근로자가 일단 비저임금 상태로 상향이동을 경험하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며, 반대로 일단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후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에 머물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임금근로자에 적합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는 비저임금이지만 저임금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은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향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및 숙련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저임금 상태로 빠질 위험성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여성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탈출(또는 비저임금 유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임금 이행에 대한 멀티 에피소드 분석 결과 또한 첫 번째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층, 생산직종, 비상용직일수록 이직 이후 미취업상태를 거친 다음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이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수단들을 함께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인적자본을 유지 및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저임금 경험자,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경험자, 제조업 경험자일수록 미취업기간 동안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 탈출확률 측면에서는 저임금근로자, 저학력층,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무노조 기업, 생산직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취업이탈 위험이 높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취약집단별로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판별을 바탕으로 각각의 근로자집단이 직면하는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집단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제 4 장

##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 함정(durable trap) 또는 회전문 함정(revolving door trap)에 빠져 저임금 상태가 고착화된다는 주장과 현재 저임금 상태는 장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 즉 징검다리(stepping stone)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축이었다. 그동안 저임금 이행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 분석 결과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소위 징검다리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실증적 논거 중의 하나는 저임금 고용 가운데 청년층의 비중이 높고, 또한 청년층은 일자리 이행을 통해 결국에는 저임금을 벗어나 상향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계층별로,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확률을 분석하여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과연 얼마나 강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저임금 고용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련 정책대안의 모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제1절에서는 KLIPS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의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 이동을 분석한다. 제2절부터는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는 KLIPS 직업력 자료를 사용, 일자리 기준에서 어떤 일자리에서 다음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한다. 연도 및 일자리 기준의 분석 결과는 저임금근로자의 이행과 관련된 보다 풍부하고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제1절 연령계층별 연도간 임금지위의 변화

### 1. 연령계층별 저임금 고용의 특성: 기초통계

KLIPS에서 연령 구간별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표 4-1), 30~54세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9%로 가장 낮고, 15~29세는 29.7%, 그리고 55세 이상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1>은 이를 다시 다양한 인적 및 기업특성별로 쪼개 저임금 및 비저임금의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적특성별로 보면, 남성은 청년층(15~29세)의 19%가 저임금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39.3%가 저임금에 속한다. 남성은 30~54세의 저임금 비중이 청년층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청년층보다 30~54세의 저임금 비중이 50.2%로 높게 나타났다. 55세 이상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각 연령 구간 안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금 비중이 높다. 55세 이상 집단에서 고졸 중 저임금자 비중은 25.4%이지만 청년층 고졸의 저임금 비중은 32.2%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55세 이상에서 고졸은 인적자본이 꽤 있는 쪽에 속하지만 청년층에서 고졸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인적자본이 부족한 편에 속한다는 세대간 차이의 반영일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쪽에 속했으며, 보건·사회복지업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은 쪽에 속했다. 15~29세에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오락·방송·공연사업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0~54세에서는 공공기관·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경우 광공업의 저임금 비중이 낮고, 다른 연령대와 달리 금융·보험업, 부

<표 4-1> KLIPS 연령 구간별·특성별 기초통계: 1998년(1차년도 조사) 기준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저임금 비중	비저임금 비중	저임금 비중	비저임금 비중	저임금 비중	비저임금 비중
전 체		29.7	70.3	20.9	79.1	51.9	48.1
성	남성	19.0	81.0	7.6	92.4	37.6	62.4
	여성	39.3	60.7	50.2	49.8	83.4	16.6
학력	무학	-	-	61.1	38.9	78.1	21.9
	고졸 미만	43.4	56.6	43.4	56.6	67.4	32.7
	고졸	32.2	67.8	18.7	81.3	25.4	74.6
	전문대 및 대학 재학	41.1	58.9	8.8	91.2	10.8	89.2
	전문대졸	28.7	71.3	3.5	96.5	0.0	100.0
	대졸 이상	16.4	83.6	4.0	96.0	14.2	85.8
산업	농림어업	0.0	100.0	25.4	74.6	100.0	0.0
	광공업/전기	30.4	69.6	21.3	78.7	37.0	63.0
	건설업	29.4	70.6	20.2	79.8	54.0	46.0
	도소매	35.8	64.2	31.2	68.8	69.0	31.0
	운수업	20.6	79.5	17.3	82.7	46.3	53.7
	통신업	35.1	64.9	0.0	100.0	0.0	100.0
	금융·보험업	15.6	84.4	16.0	84.0	59.6	40.4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6.4	83.6	16.2	83.8	59.5	40.5
	공공·교육	34.3	65.7	11.7	88.3	38.7	61.3
	보건사회복지	22.0	78.0	13.6	86.4	30.0	70.0
	오락·방송·공연사업	72.1	27.9	23.3	76.7	100.0	0.0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	35.5	64.5	36.4	63.6	58.8	41.3
직업	고위/(준)전문가	23.7	76.3	7.3	92.7	13.7	86.3
	사무직원	28.7	71.3	5.9	94.2	31.5	68.5
	서비스/판매	44.2	55.8	40.9	59.1	70.1	29.9
	농업숙련	-	-	73.1	27.0	100.0	0.0
	기능원	16.3	83.7	20.2	79.8	38.6	61.4
	조직원	36.8	63.2	23.7	76.3	40.7	59.3
	단순노무	42.2	57.8	52.8	47.3	72.9	27.1
	사업체 규모	10인 미만	34.3	65.7	31.9	68.2	58.7
10~29인	28.1	71.9	20.0	80.0	33.7	66.3	
30~99인	29.9	70.1	16.9	83.1	46.0	54.0	
100~299인	23.0	77.0	17.1	82.9	53.3	46.7	
300인 이상	25.4	74.6	12.8	87.2	46.1	54.0	
종사 지위	상용	24.0	76.0	13.5	86.5	39.3	60.7
	임시	65.4	34.7	56.2	43.8	82.6	17.4
	일용	52.2	47.8	49.7	50.3	71.5	28.5

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표본수가 적으므로 유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직업별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고위직·전문가·준전문가 집단에서 저임금자 비중이 낮고,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직에서 저임금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청년층이나 30~54세의 경우 대체로 규모가 큰 곳이 규모가 작은 곳에 비해 저임금 비중이 낮지만, 55세 이상과 청년층의 경우 사업체 규모와 저임금 비중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연령 구간에 상관없이 임시직에서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았고, 상용직에서 가장 낮았다.

## 2. 연령계층별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의 변화

<표 4-2>는 KLIPS 조사가 시작된 외환위기 직후인 1998~99년간의 임금지위 이동을 분석하였다. 표에서 50%<는 중위임금의 절반 미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50%~2/3<은 중위임금의 절반 이상에서 중위임금의 2/3 미만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통 OECD 보고서들을 보면 중위임금의 2/3 미만 받는 경우 저임금이라고 정의한다. 2/3~중위<는 중위임금의 2/3 이상, 중위임금 미만 받는 사람을, 중위~3/2<는 중위임금 이상, 중위임금의 3/2 미만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위 3/2~는 중위임금 3/2 이상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들을 보면 고임금을 정의할 때 중위임금 3/2 이상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곤 한다.

15~29세의 외환위기 직후 임금지위 이동을 보면, 1998년 저임금근로자 중 35.2%가 1999년에도 저임금인 채로 남았고, 64.8%는 비저임금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분해 보면 1998년에 중위임금 50% 미만 벌었던 사람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1999년에도 중위임금 50% 미만, 중위임금 2/3 미만으로 정의되는 저임금에는 62.2%가 남은 반면, 1998년에 중위임금 50%~2/3 미만을 벌었던 사람들은 26.8%만이 1999년에 저임금에 남아 연도간 이동에서 저임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적게 벌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하락하는 비중은 단지 4.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54세의 저임금에서 머무는 비중은 15~29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3.2%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에서도 저임금인 채로 남는

<표 4-2> 1998~1999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단위: %)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35.2		64.8			100.0	
임	50%<		46.6	15.6	29.1	5.3	3.5	100.0
금	50%~2/3<		6.0	20.8	54.0	17.7	1.6	100.0
비		4.1		95.9			100.0	
저	2/3~중위<		3.3	3.4	52.3	36.1	4.9	100.0
임	중위~3/2<		0.6	1.4	14.8	66.2	17.0	100.0
금	중위 3/2~		0.0	0.0	9.04	20.3	70.7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52.6		47.4			100.0	
임	50%<		42.9	33.9	14.0	7.8	1.4	100.0
금	50%~2/3<		10.1	27.3	51.6	9.9	1.0	100.0
비		3.2		96.8			100.0	
저	2/3~중위<		3.1	8.1	43.2	36.7	8.9	100.0
임	중위~3/2<		0.8	1.5	9.3	57.4	31.1	100.0
금	중위 3/2~		0.2	0.2	2.1	18.1	79.5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68.9		31.1			100.0	
임	50%<		51.4	36.1	10.5	2.0	0.0	100.0
금	50%~2/3<		20.4	32.1	38.7	7.1	1.7	100.0
비		11.4		88.6			100.0	
저	2/3~중위<		4.7	17.3	57.9	15.6	4.5	100.0
임	중위~3/2<		7.3	0.0	9.6	74.3	8.9	100.0
금	중위 3/2~		5.0	0.0	0.0	12.7	82.3	100.0

사람들은 중위임금 50% 미만이 76.8%로 매우 높고, 중위임금 50%~2/3 미만 집단은 37.3%만이 저임금에 머물렀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저임금 →저임금 비중은 68.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비저임금 →

〈표 4-3〉 2003~2004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단위: %)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63.3		36.7				100.0
임	50%<		38.0	32.6	29.4	0.0	0.0	100.0
금	50%~2/3<		15.1	45.3	34.4	3.4	1.8	100.0
비		7.0		93.0				100.0
저	2/3~중위<		1.8	11.8	64.0	20.5	2.0	100.0
임	중위~3/2<		0.0	1.8	17.7	60.4	20.1	100.0
금	중위 3/2~		0.0	0.0	1.1	26.0	72.9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79.3		20.7				100.0
임	50%<		70.4	17.0	8.7	1.5	2.6	100.0
금	50%~2/3<		24.0	48.5	22.1	3.5	1.9	100.0
비		6.8		93.2				100.0
저	2/3~중위<		5.7	20.8	50.8	17.2	5.5	100.0
임	중위~3/2<		1.3	2.0	18.7	56.6	21.4	100.0
금	중위 3/2~		0.0	0.4	1.1	11.6	87.0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87.0		13.0				100.0
임	50%<		75.0	12.8	9.0	3.2	0.0	100.0
금	50%~2/3<		26.5	59.6	11.4	2.5	0.0	100.0
비		21.3		78.7				100.0
저	2/3~중위<		12.2	27.2	40.0	18.1	2.5	100.0
임	중위~3/2<		0.0	13.3	30.8	41.0	15.0	100.0
금	중위 3/2~		0.0	1.7	5.0	12.2	81.1	100.0

저임금인 경우도 11.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이상의 차이는 15~29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그래서 임금이 상승 중에 있는 연령대라는 점, 55세 이상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금이 하락 중에 있는 연령대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다음으로 <표 4-3>은 외환위기를 빠져나온 2003년과 2004년 사이의 연도간 임금지위 이동을 분석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저임금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8~1999년에는 35.2%만이 저임금에 계속 머문 반면 2003~2004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63.3%가 여전히 저임금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모든 연령대에서 1998~1999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을 제외하면 50%<집단에 머무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청년층의 경우 50%<에 머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50%<에서 50%~2/3<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늘어났다. 하지만, 청년층 중 50%~2/3<이었던 사람들 중 50%<로 떨어진 사람들은 1998~1999년 6.0%에서 2003~2004년 15.1%로 증가하였고, 여전히 50%~2/3<에 머문 사람은 1998~1999년 20.8%에서 2003~2004년 45.3%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4-4>는 KLIPS 자료에서 가장 최근에 가까운 2007~2008년을 분석하고 있다. 2003~2004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저임금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소 증가했다.

<표 4-5>부터는 격년간 이동을 분석하였다. 1998년에 저임금이었던 사람이 2000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1998년, 1999년 연속 저임금이었던 사람이 2000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1998~1999년간 이동과 비교했을 때, 저임금에 머무는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소 증가했다. 1999년 저임금에서 탈출했다가 2000년 다시 저임금 상태에 빠진 사람이 꽤 있다는 의미이다. 차이가 있다면 55세 이상을 제외하면 50%<에 머무는 비중은 줄어들고, 50%<에서 50%~2/3<으로 상향이동한 비중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8년에 50%~2/3<였다가 2000년에도 50%~2/3<에 머문 비중은 1998~1999년 연도간 이동보

〈표 4-4〉 2007~2008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임 금		67.3			32.7			100.0	
	50%<		39.4	30.7		22.3	4.0	3.6	100.0
	50%~2/3<		6.9	58.8		28.4	5.9	0.0	100.0
비 저 임 금			11.9			88.1		100.0	
	2/3~중위<		3.0	18.8		57.7	19.9	0.7	100.0
	중위~3/2<		0.0	4.3		21.2	61.6	13.0	100.0
	중위 3/2~		0.0	0.0		2.7	28.6	68.8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임 금		83.4			16.6			100.0	
	50%<		61.8	31.2		5.9	1.1	0.0	100.0
	50%~2/3<		10.6	63.7		21.7	3.1	0.9	100.0
비 저 임 금		7.1			92.9			100.0	
	2/3~중위<		5.3	21.6		53.4	16.9	2.9	100.0
	중위~3/2<		0.8	2.8		18.2	56.2	22.0	100.0
	중위 3/2~		0.3	0.0		1.3	7.9	90.6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임 금		92.8			7.2			100.0	
	50%<		78.9	20.1		1.0	0.0	0.0	100.0
	50%~2/3<		23.0	61.1		14.5	1.5	0.0	100.0
비 저 임 금		18.0			82.0			100.0	
	2/3~중위<		9.7	26.9		57.0	6.4	0.0	100.0
	중위~3/2<		1.8	12.7		33.7	46.4	5.5	100.0
	중위 3/2~		0.0	2.4		2.9	7.3	87.4	100.0

<표 4-5> 1998~2000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단위: %)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41.0		59.0				100.0
임	50%<		21.1		35.3	16.5	0.0	100.0
금	50%~2/3<		3.5		50.4	8.1	2.5	100.0
비		7.8		92.2				100.0
저	2/3~중위<		0.9		48.3	34.6	5.8	100.0
임	중위~3/2<		0.6		14.9	59.4	21.1	100.0
금	중위 3/2~		0.0		5.3	21.7	70.9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66.5		33.5				100.0
임	50%<		34.1		13.2	8.8	3.0	100.0
금	50%~2/3<		13.1		27.2	9.1	3.3	100.0
비		4.5		95.5				100.0
저	2/3~중위<		4.1		41.3	34.3	11.6	100.0
임	중위~3/2<		1.4		9.9	53.7	31.9	100.0
금	중위 3/2~		0.3		1.5	17.8	79.7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77.4		22.6				100.0
임	50%<		64.2		6.3	2.9	0.0	100.0
금	50%~2/3<		14.7		25.0	8.2	0.0	100.0
비		16.8		83.2				100.0
저	2/3~중위<		11.0		34.4	14.0	6.4	100.0
임	중위~3/2<		0.0		15.2	50.2	27.7	100.0
금	중위 3/2~		0.0		13.3	18.5	68.3	100.0

다 증가했다.

<표 4-6>은 2003~2005년간 이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3~2004년 결과에 비해 저임금인 채로 머무는 비중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4-5>의 1998~2000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저임금인 채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저임금이었다가 저임금으로 하락한 사람들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다만, 청년층과

<표 4-6> 2003~2005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단위: %)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58.4		41.6				100.0
임	50%<		32.2	26.7	29.0	12.0	0.0	100.0
금	50%~2/3<		22.5	35.7	32.9	8.9	0.0	100.0
비		9.5		90.5				100.0
저	2/3~중위<		2.4	15.4	57.3	23.2	1.7	100.0
임	중위~3/2<		2.7	0.6	17.1	67.9	11.8	100.0
금	중위 3/2~		0.0	1.4	2.3	43.5	52.8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75.8		24.3				100.0
임	50%<		65.2	16.8	13.9	4.1	0.0	100.0
금	50%~2/3<		38.1	32.7	24.5	4.2	0.6	100.0
비		6.6		93.4				100.0
저	2/3~중위<		7.9	18.0	50.7	21.4	2.0	100.0
임	중위~3/2<		1.5	1.6	18.0	63.6	15.3	100.0
금	중위 3/2~		0.1	0.7	2.4	19.5	77.3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88.3		11.7				100.0
임	50%<		78.2	6.9	10.9	4.1	0.0	100.0
금	50%~2/3<		51.3	40.7	8.0	0.0	0.0	100.0
비		35.7		64.3				100.0
저	2/3~중위<		20.6	43.9	26.9	8.7	0.0	100.0
임	중위~3/2<		12.5	9.5	38.6	37.7	1.7	100.0
금	중위 3/2~		2.5	0.0	9.1	14.6	73.9	100.0

30~54세의 경우 비저임금이었다가 저임금으로 하락한 사람들이 2~3% 포인트 정도 증가했다면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6.8%에서 35.7%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4-7> 1998~2001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단위: %)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30.4		69.7				100.0
임	50%<		15.3	32.1	28.3	22.5	1.8	100.0
금	50%~2/3<		4.5	19.2	48.7	24.2	3.3	100.0
비		4.6		95.4				100.0
저	2/3~중위<		1.7	4.9	36.8	44.4	12.2	100.0
임	중위~3/2<		1.3	1.8	9.1	45.3	42.5	100.0
금	중위 3/2~		2.4	0.0	16.8	15.9	64.9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51.7		48.3				100.0
임	50%<		26.0	28.6	29.6	11.9	3.8	100.0
금	50%~2/3<		10.5	39.5	26.8	17.5	5.6	100.0
비		3.6		96.4				100.0
저	2/3~중위<		2.1	10.6	29.9	42.1	15.2	100.0
임	중위~3/2<		0.5	2.1	8.4	45.1	43.9	100.0
금	중위 3/2~		0.2	0.5	2.5	12.0	84.9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64.6		35.4				100.0
임	50%<		39.2	38.2	12.5	6.8	3.3	100.0
금	50%~2/3<		19.7	34.4	39.7	3.8	2.4	100.0
비		19.2		80.8				100.0
저	2/3~중위<		8.8	21.1	49.7	17.1	3.4	100.0
임	중위~3/2<		0.0	14.8	15.3	60.4	9.5	100.0
금	중위 3/2~		4.6	7.1	13.6	6.1	68.6	100.0

<표 4-7>은 이보다 더 긴 시기의 이행을 보여준다. 1998년에 저임금이었던 사람들의 2001년 상태를 분석하였는데, 1998~2000년의 임금지위 이동보다 저임금인 채 머무르는 사람들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표 4-8> 2003~2006년간 연령 구간별 임금지위 이동

(단위: %)

15~29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43.5		56.5				100.0	
임	50%<		13.0	24.4		43.1	17.9	1.7	100.0
금	50%~2/3<		6.6	40.4		39.4	13.7	0.0	100.0
비		7.5		92.5					100.0
저	2/3~중위<		1.3	11.9		51.9	30.7	4.2	100.0
임	중위~3/2<		0.0	1.9		12.9	62.5	22.8	100.0
금	중위 3/2~		4.0	1.4		3.9	23.2	67.6	100.0
30~54세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67.0		33.0					100.0
임	50%<		53.0	15.9		21.6	9.6	0.0	100.0
금	50%~2/3<		33.2	32.5		28.4	4.2	1.7	100.0
비		6.0		94.1					100.0
저	2/3~중위<		7.4	15.7		45.2	28.9	2.9	100.0
임	중위~3/2<		1.8	2.0		15.4	57.4	23.4	100.0
금	중위 3/2~		0.1	0.4		2.1	16.6	80.8	100.0
55세 이상									
		저임금		비저임금			전 체		
		50%<	50%~ 2/3<	2/3~ 중위<	중위~ 3/2<	중위 3/2~			
저		85.7		14.3					100.0
임	50%<		83.2	4.7		10.7	1.5	0.0	100.0
금	50%~2/3<		48.5	34.9		13.6	1.9	1.1	100.0
비		37.7		62.4					100.0
저	2/3~중위<		25.7	36.8		22.7	14.8	0.0	100.0
임	중위~3/2<		8.9	20.5		25.6	43.4	1.7	100.0
금	중위 3/2~		0.0	2.3		10.6	18.0	69.1	100.0

있다. 청년층의 경우 50%<에서나 50%~2/3< 집단에서나 머무르거나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고령층의 경우 비저임금이었던가 저임금으로 하락한 사람들의 비중은 연도간(11.4%), 격년 간 이동(16.8%)보다 증가(19.2%)했다. 이와 같은 두 연령집단의 차이는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아나가며 상승하는 위치에 있고 고령층의 경우 은퇴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차이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표 4-8>은 2003~2006년 동안의 임금지위 이동을 요약하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저임금에 머무르는 비중이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우 2003~2004년 동안에는 63.3%가 여전히 저임금으로 남았지만, 2003~2005년에는 58.4%로 감소했고, 2003~2006년에는 43.5%로 감소했다.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003~2004년에는 87%가 여전히 저임금인 채 남았으며, 2003~2005년에는 88.3%가, 2003~2006년에는 85.7%가 여전히 저임금 상태로 남았다.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의 하락은 고령층을 제외하면 기간을 연장해 보아도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일을 찾아 상승하는 과정 중에 있는 세대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임금인 채 머무르는 사람들의 비중도 낮았고, 보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보다 상향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 보다 긴 기간의 이행을 볼수록 이런 상향이동자의 비중이 늘어난다. 반면, 고령층은 청년층과는 반대로 하향이동의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간보다 긴 시간의 이행을 보면 보다 분명히 하향이동의 과정이 확인된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보다 그 이후에 임금지위 이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외환위기라는 일시적 경제적 충격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지금보다 임금지위 이동이 보다 활발했던 것인지는 자료상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청년층에서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3년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43.5%는 저임금인 채로 있었다(2003~2006년간). 또한, 50%< 집단에 머무는 사람들도 13.0%,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하락한 사람들도 7.5%가 있었다. 많은 청년층들은 통상의 노동

시장 진입단계를 거쳐 임금이 상승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또 다른 상당수의 청년층들은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제2절 연령계층별 저임금 고용의 일자리 이행확률

앞서 제1절에서는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연도간(year-to-year) 임금 지위 이동, 즉 어떤 연도에서의 임금지위가 다음 또는 다다음 연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는 KLIPS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한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행과정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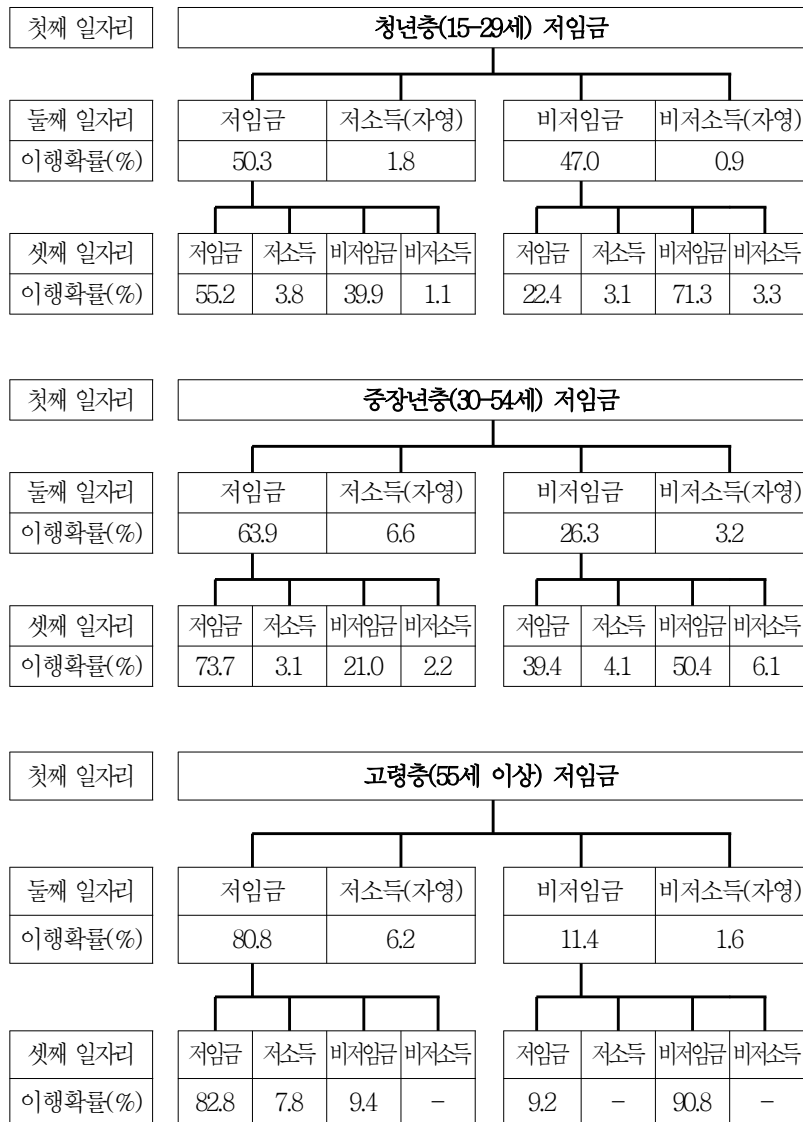
[그림 4-1]은 전체 분석기간(1998~2008) 동안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과정 및 상태간 이행확률을 연령계층별로 비교한다. 먼저, 첫째 일자리가 저임금인 청년층(15~29세)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다음 일자리에서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은 47.9%(비저임금 47.0%, 자영업 비저소득 0.9%)이다. 나머지 52.1%는 저임금(50.3%) 또는 자영업 저소득(1.8%) 상태에 머물게 된다.

‘저임금→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상향이동을 통해 저임금 상태를 탈출할 확률은 41.0%로 첫 번째 이행에서 저임금을 탈출하는 비율(47.9%)보다 낮으며, 이는 저임금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다음 이행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한편, 첫째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비저임금’으로 상향이동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는 74.5%가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는 일단 저임금을 탈출하게 되면 다음 일자리 이행에서 계속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커짐을 보여준다.

중장년층(30~54세) 저임금근로자가 둘째 일자리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확률은 29.5%로 청년층 저임금근로자(47.9%)보다 매우 낮으며, 고령층(55세 이상) 저임금근로자의 경우는 13.0%로 더욱 낮아진다. ‘저임금→저임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을 벗어

날 확률이 중장년층 23.2%, 고령층 9.4%로 청년층(41.0%)보다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저임금에서 벗어나 비저임금으로 상향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을 시사한다.

[그림 4-1]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의 이행확률



한편, 첫째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탈출에 성공한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다음 이행에서 저임금에 빠질 확률은 중장년층의 경우 43.5%로 청년층(25.5%)보다 높고, 고령층의 경우는 9.2%로 청년층보다도 낮다. 청년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도 저임금 일자리 경험횟수가 늘어날수록 다음 이행에서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표 4-9>는 첫째 저임금 일자리 기준으로 임금수준, 취업기간, 상·학력·직종 구성, 정규직 비율 등 주요 변수들에서 연령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첫째 일자리 취업기간은 376.4일로 가장 짧고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취업기간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미취업기간은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저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40% 정도로 비슷하나 중장년층의 경우 20% 미만으로 매우 낮다. 저임금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의 비중은 청년층에서는 38% 정도이나 중장년층과 고령층으로 가면 9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자이어도 현재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이후 보다 양호한 일자리를 모색하면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저임금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중장년층의 경우 약간 높으나 연령계층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직종별로는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저임금 가운데 생산직의 비율이 높아진다.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에서 임금수준, 취업기간, 남성, 저학력, 생산직종, 정규직, 영세기업 비율 등 주요 변수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연령계층별로 비교해 보자(표 4-9). 먼저,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에서 주요 변수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자. 먼저 이행과정에서의 임금수준 변동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저임금→저임금’ 이행에서는 실질임금 상승이 미약한 반면, ‘저임금→비저임금’ 이행을 통해서는 대폭적인 실질임금 상승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향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 반면,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에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대폭적인 실질임금의 하락을 경험한다.

<표 4-9>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의 이행 및 주요 변수의 변화

첫 번째 일자리	청년층(15~29세) 저임금		중장년층(30~54세) 저임금		고령층(55세 이상) 저임금																			
취업기간	376.4		763.3		880.4																			
임금수준	58.3		56.4		54.4																			
미취업기간	434.1		356.8		321.4																			
남성 비율	0.40		0.17		0.43																			
저학력 비율	0.38		0.90		0.95																			
정규직 비율	0.34		0.37		0.33																			
생산직 비율	0.22		0.57		0.86																			
30인 미만 비율	0.88		0.88		0.83																			
두 번째 일자리	저임금		비저임금		저임금		비저임금		저임금		비저임금													
취업기간	367.0		556.8		563.2		551.7		452.3		742.8													
임금수준	62.9		117.4		59.4		112.0		52.0		127.2													
미취업기간	361.2		305.5		263.9		259.1		258.2		255.7													
남성 비율	0.31		0.45		0.09		0.38		0.39		0.79													
저학력 비율	0.43		0.34		0.94		0.90		0.98		0.94													
정규직 비율	0.42		0.71		0.29		0.55		0.20		0.53													
생산직 비율	0.22		0.28		0.62		0.51		0.90		0.79													
30인 미만 비율	0.87		0.75		0.87		0.83		0.96		0.80													
세 번째 일자리	저임금		비저임		저임금		비저임		저임금		비저임		저임금		비저임									
취업기간	393.5		472.4		447.4		546.1		497.2		657.2		562.1		455.2		392.1		405.5		585.5		304.1	
임금수준	68.5		125.0		73.2		131.1		63.2		112.7		72.3		121.0		57.3		104.3		66.5		99.1	
미취업기간	229.7		237.5		305.1		212.2		208.4		110.8		259.1		219.2		204.7		415.6		136.8		60.8	
남성 비율	0.25		0.28		0.29		0.50		0.10		0.14		0.22		0.45		0.32		0.50		0.75		1.00	
저학력 비율	0.48		0.41		0.57		0.52		0.95		0.89		0.83		1.00		1.00		1.00		1.00		0.00	
정규직 비율	0.48		0.67		0.40		0.76		0.32		0.54		0.30		0.61		0.34		0.50		0.25		1.00	
생산직 비율	0.15		0.23		0.19		0.29		0.65		0.54		0.63		0.52		0.92		0.83		0.75		1.00	
30인 미만 비율	0.91		0.76		0.80		0.73		0.82		0.71		0.83		0.78		0.67		1.00		1.00		1.00	

주: 여기서 저임금 및 비저임금 상태 외에 저소득(자영업)과 비저소득(자영업)으로의 이행은 보고하지 않았음.

성별 구성의 변화를 보면,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저임금→저임금’ 이행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감소하고 ‘저임금→비저임금’ 이행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저임금에 빠질 위험성이 큰 반면 비저임금으로 상향이동 할 가능성은 적음을 시



사한다. 고졸 이하 저학력의 구성 비율을 보면, 연령계층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학력자의 비율이 ‘저임금→저임금’ 이행에서는 감소하고 ‘저임금→비저임금’ 이행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저학력자일수록 저임금에 빠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준다.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저임금→저임금’ 이행근로자에 비해 ‘저임금→비저임금’ 이행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이 높는데, 이는 저임금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직종 구성의 변화를 보면, 청년층의 경우 비저임금 이행보다 저임금 이행에서 생산직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저임금 이행시의 생산직 비중이 다소 높다. 이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비저임금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직종보다는 관리·사무직종으로 직종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기업규모의 구성 변화를 보면, 비저임금으로의 상향이동시 저임금 이행과 비교하여 30인 미만 기업규모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이 양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연령계층별 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현실에서 개별 근로자는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며, 저임금 일자리를 계속 오가는 소위 ‘회전문 함정’에 빠지거나, 새로운 자리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수의 일자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행에 대한 멀티 에피소드(multi-episode) 분석을 통해 일자리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저임금→저임금’ 이행과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이라는 두 가지 저임금 이행에 대해 로짓모형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표 4-10>과 <표 4-11>은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4-10>은 분석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자리 이행을 포괄하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근로자가

복수의 일자리 이행을 경험한 경우 각각 하나의 관측치를 구성한다. <표 4-11>은 분석기간 동안 관찰된 개별 근로자의 첫째 일자리→둘째 일자리 이행을 포함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4-10>에 따르면, 이행 이전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임금 변수는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모형 공히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이는 이전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매우 강력함을 보여준다. 이는 처음 일자리가 저임금인 경우 남성은 미취업상태를 거친 다음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이어지는 소위 ‘회전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작음을 시사한다.

<표 4-10> 연령계층별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전체 일자리 이행 표본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고령층(55세 이상)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상수항	1.869	0.656***		1.144	0.127***		1.309	0.189***	
남성	-0.690	0.134***	0.501	-0.305	0.038***	0.244	-0.139	0.044***	0.207
고등학교	-0.065	0.238	0.937	-0.081	0.027***	0.648	-0.028	0.055	0.758
전문대학	-0.309	0.249	0.734	-0.019	0.066	0.891	0.200	0.343	>999
대학교 이상	-0.469	0.245*	0.626	-0.086	0.061	0.655	-0.006	0.117	1.084
월평균 임금	-0.325	0.150**	0.722	-0.060	0.032**	0.688	-0.086	0.047*	0.440
관리전문가	-0.179	0.231	0.836	-0.109	0.055*	0.577	0.066	0.156	>999
사무관매서비스직	-0.027	0.184	0.973	-0.051	0.035	0.746	-0.081	0.067	0.512
농광업	12.58	446.0	999<	-0.076	0.147	0.657	-0.047	0.101	0.720
건설업	-0.610	0.365*	0.543	-0.148	0.059**	0.480	-0.118	0.085	0.396
사업서비스업	-0.126	0.262	0.881	-0.001	0.053	0.956	0.010	0.069	0.998
유통서비스업	0.113	0.211	1.120	-0.055	0.046	0.749	-0.052	0.035	0.567
개인서비스업	0.052	0.214	1.054	-0.048	0.042	0.754	-0.153	0.079**	0.189
사회서비스업	0.108	0.218	1.114	-0.017	0.043	0.875	0.004	0.066	0.921
상용직	0.048	0.140	1.050	-0.091	0.029***	0.617	0.019	0.049	1.120
-2LL	16822			14769			2735		
관측치	1,214			1,208			341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임금→저임금’ 이행, 즉 ‘저임금 함정’에 빠질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나, 많은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직종별·산업별로도 대체로 추정치의 유의성이 떨어진다. 다만, 산업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층을 제외하면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행 이전 일자리에서 상용직이었던 근로자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유의성이 낮으나 중장년층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소한 중장년층의 경우 상용직일수록 ‘회전문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동안 표본 근로자의 첫째 일자리→둘째 일자리 이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4-11>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의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대체로 <표 4-10>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4-11> 연령계층별 ‘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첫째→둘째 일자리 이행 표본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고령층(55세 이상)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상수항	2.385	0.827***		4.946	1.208***		4.567	3.083	
남성	-0.646	0.173***	0.524	-1.806	0.324***	0.164	-2.005	0.783**	0.135
고등학교	0.009	0.303	1.104	-0.694	0.229***	0.500	-0.166	0.783	0.847
전문대학	-0.094	0.313	0.910	-0.476	0.624	0.622	1.321	1.184	>999
대학교 이상	-0.241	0.308	0.786	0.357	0.522	1.429	-1.376	1.194	0.253
월평균 임금	-0.526	0.190***	0.591	-0.697	0.303**	0.498	-0.211	0.806	0.810
관리전문가	-0.165	0.302	0.848	-1.400	0.468***	0.247	10.37	835.2	>999
사무·판매서비스직	0.049	0.240	1.050	-0.726	0.315**	0.484	-0.257	1.111	0.773
농·광업	13.58	736.2	>999	-1.288	1.328	0.276	-0.823	1.453	0.439
건설업	-1.051	0.552*	0.349	-0.686	0.493	0.504	0.114	1.233	1.121
사업서비스업	-0.180	0.329	0.835	-0.241	0.461	0.786	0.555	1.050	1.743
유통서비스업	0.211	0.276	1.235	-0.330	0.396	0.719	-1.683	1.180	0.186
개인서비스업	0.009	0.268	1.009	-0.051	0.383	0.950	-1.317	1.234	0.268
사회서비스업	-0.009	0.278	0.942	0.025	0.370	1.025	0.212	1.087	1.236
상용직	0.100	0.182	1.105	-0.095	0.246	0.909	-0.674	0.845	0.510
-2LL	1081.4			637.1			120.2		
관측치	744			525			159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자. <표 4-12>와 <표 4-13>은 각각 전체 일자리 이행 표본, 첫째→둘째 일자리 이행 표본에 대해 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월평균 임금 변수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며 그 효과 또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행 이전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상태를 거쳐 저임금 일자리로 하향이동 할 위험성이 크게 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성별 더미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고령층에서는 반대의 부호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위험이 매우 낮은 반면, 고령층 남성은 여성보다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위험이 오히려 큼을 보여준다.

<표 4-12> 연령계층별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전체 일자리 이행 표본 전체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고령층(55세 이상)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상수항	8.160	1.507***		8.043	1.150***		9.739	2.729	
남성	-1.039	0.168***	0.354	-1.414	0.162***	0.243	0.191	0.695***	1.212
고등학교	-0.191	0.225	0.827	-0.256	0.146*	0.774	-0.402	0.380	0.668
전문대학	-0.313	0.247	0.732	-1.119	0.336***	0.327	-	-	-
대학교 이상	-0.318	0.247	0.728	-0.464	0.249*	0.629	-0.092	0.722	0.912
월평균 임금	-1.718	0.320***	0.179	-1.647	0.245***	0.193	-1.910	0.553***	0.148
관리전문가	-0.614	0.235***	0.541	-0.450	0.250*	0.638	0.385	0.688	1.47
사무·판매서비스직	-0.524	0.208**	0.592	-0.261	0.191	0.771	0.007	0.627	1.007
농·광업	-0.488	1.103	0.614	-0.010	0.576	0.990	-1.793	1.336	0.166
건설업	-0.156	0.281	0.856	-0.029	0.238	0.971	-0.218	0.614	0.803
사업서비스업	-0.037	0.251	0.963	0.214	0.256	1.239	0.132	0.536	1.141
유통서비스업	0.046	0.211	1.047	0.151	0.219	1.163	-0.067	0.644	0.935
개인서비스업	-0.237	0.239	0.789	-0.186	0.221	0.830	0.573	0.779	1.775
사회서비스업	-0.115	0.241	0.891	0.479	0.267*	1.614	-1.344	0.679**	0.261
상용직	-0.446	0.163***	0.640	-0.385	0.151**	0.681	-0.089	0.442	0.914
-2LL		1468.1			1858.5			237.6	
관측치		1537			1933			177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학력별 더미의 경우 중장년층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자가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에 빠질 확률이 가장 크고 전문대의 경우 가장 낮으나,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직종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대체로 관리·전문가→사무·판매·서비스직→생산직으로 감에 따라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고령층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다. 산업별 더미 변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행 이전 일자리에서 상용직이었던 근로자일수록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위험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끝으로, 분석기간 동안 첫째→둘째 일자리 이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4-13>의 결과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전체 일자리 이행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표 4-12)와 대체로 부합한다.

<표 4-13> 연령계층별 ‘비저임금→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첫째 →둘째 일자리 이행 표본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고령층(55세 이상)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추정 계수	표준 오차	odds ratio
상수항	6.125	1.979***		7.067	1.693***		7.487	3.504**	
남성	-1.078	0.228***	0.340	-1.593	0.250***	0.203	1.619	1.084	5.047
고등학교	-0.239	0.293	0.788	-0.394	0.230*	0.675	0.093	0.590	1.098
전문대학	-0.283	0.312	0.753	-1.485	0.656**	0.227	-	-	-
대학교 이상	-0.416	0.313	0.660	-0.382	0.361	0.683	0.369	1.051	1.446
월평균임금	-1.233	0.420***	0.291	-1.366	0.366***	0.255	-1.467	0.713**	0.231
관리·전문가	-0.740	0.308**	0.477	-0.217	0.375	0.805	-0.498	0.916	0.608
사무·판매·서비스직	-0.671	0.284**	0.511	-0.108	0.296	0.898	-2.664	1.291**	0.070
농·광업	0.291	1.254	1.338	-0.750	1.089	0.472	-2.292	1.486	0.101
건설업	0.052	0.369	1.054	0.037	0.362	1.038	-1.358	0.947	0.257
사업서비스업	-0.326	0.348	0.722	0.083	0.377	1.086	-0.368	0.846	0.692
유통서비스업	-0.014	0.277	0.987	-0.022	0.343	0.978	-0.196	1.062	0.822
개인서비스업	-0.914	0.434**	0.401	-0.358	0.355	0.699	15.80	401.0	>999
사회서비스업	-0.349	0.314	0.705	-0.261	0.417	0.770	-1.063	0.940	0.346
상용직	-0.415	0.223*	0.660	-0.620	0.243**	0.538	-0.875	0.678	0.417
-2LL	797.1			787.4			125.6		
관측치	825			802			97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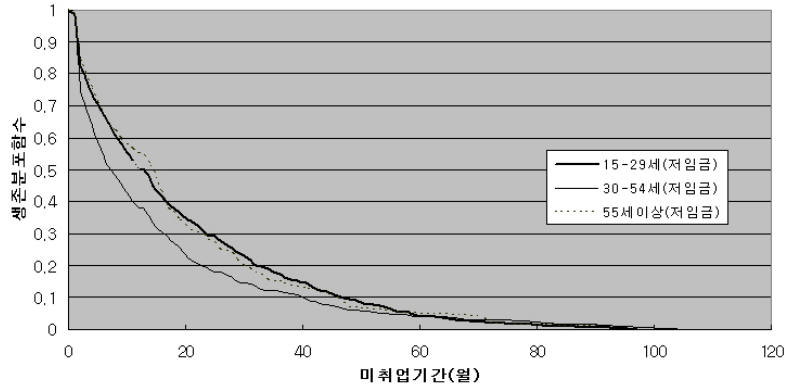
## 제4절 연령계층별 취업·미취업 탈출확률 분석

### 1.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앞 절에서는 복수의 일자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행에 대한 멀티 에피소드(multi-episode) 분석을 통해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싱글 에피소드(single-episode) 분석, 즉 어떤 시점에서 저임금(또는 비저임금) 근로자가 해당 일자리를 이탈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임금(또는 비저임금) 근로자가 미취업상태를 벗어날 확률이 연령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Kaplan-Meier(KM) 방식으로 생존분포함수(survival distribution function)를 추정하고, Cox 해저드 분석을 통해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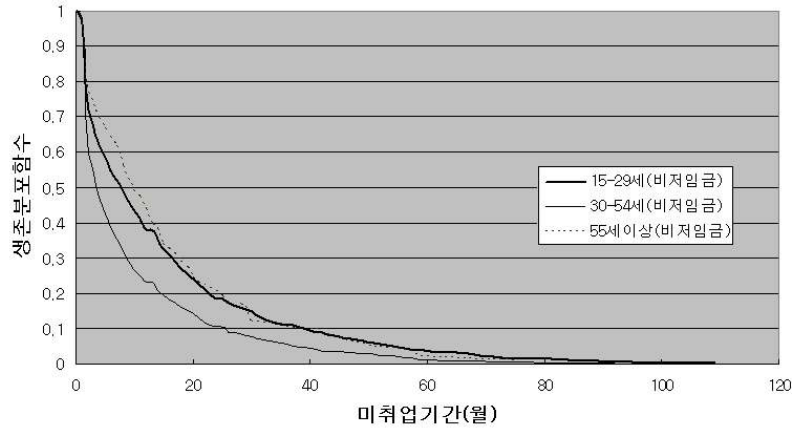
먼저, [그림 4-2]와 [그림 4-3]은 KM 방법으로 추정된 미취업상태 생존함수가 연령계층별(15~29세, 30~54세, 55세 이상)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먼저, 미취업상태 직전 일자리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미취업 탈출확률을 비교하면, 30~54세 연령층은 거의 모든 미취업기간에서 15~29세, 55세 이상에 비해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 15~29세와 55세 이상 사이의 비교는 다소 복잡한데, 대체로 미취업기간이 17~18개월에 도달할 때까지는 15~29세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약간 높은 반면, 이후 미취업기간이 60개월까지는 55세 이상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다소 높다. 한편, 미취업상태 직전의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실직 직전 일자리의 저임금 여부에 관계없이 중장년 연령층(30~54세)이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하기 쉬우며,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55세 이상) 사이에는 미취업기간이 짧을수록(길수록) 청년층(고령층)이 보다 쉽게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저임금근로자



저임금	관측치		quartile estimate(월)			평균 (월)	equality test( $\chi^2$ )		
	전체	우측절단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15~29세	1,686	237	28	12	4	18.9	58.7 (<.0001)	87.2 (<.0001)	71.5 (<.0001)
30~54세	1,836	242	19	8	2	14.9			
55세 이상	608	463	27	14	4	19.1			

[그림 4-3]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비저임금근로자



비저임금	관측치		quartile estimate(월)			평균 (월)	equality test( $\chi^2$ )		
	전체	우측절단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15~29세	2,108	182	18	8	2	14.5	167.1 (<.0001)	178.3 (<.0001)	270.7 (<.0001)
30~54세	2,873	133	11	3	1	9.2			
55세 이상	312	34.3	20	10	2	15.4			

<표 4-14>는 Cox 해저드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로 미취업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인적특성 변수들은 대체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산업 더미 등 변수들의 경우 유의성이 낮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는 거의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먼저, 모든 연령계층에서 미취업상태 직전 일자리에서 저임금이었던 근로자일수록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위험비(hazard ratio)에 따르면, 저임금 여부가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으로 갈수록 크다.

<표 4-14> 연령계층별 미취업 탈출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Cox 해저드모형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고령층(55세 이상)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남성	0.266	0.044***	1.305	0.403	0.045***	1.496	0.098	0.117	1.103
고등학교	0.224	0.072***	1.251	0.073	0.040*	1.076	0.165	0.116	1.179
전문대학	0.231	0.076***	1.280	0.057	0.072	1.059	-0.977	1.006	0.377
대학교 이상	0.114	0.076	1.121	0.155	0.060***	1.167	-0.151	0.222	0.830
저임금 고용	-0.082	0.048*	0.921	-0.125	0.044***	0.883	-0.298	0.115***	0.743
관리전문가	0.179	0.069***	1.196	-0.057	0.055	0.935	-0.556	0.232**	0.574
사무관매서비스직	0.002	0.059	1.002	-0.100	0.047**	0.904	-0.071	0.154	0.931
농광업	0.331	0.321	1.392	0.044	0.174	1.045	0.071	0.252	1.074
건설업	0.136	0.090	1.146	0.042	0.055	1.043	-0.092	0.186	0.912
사업서비스업	0.015	0.077	1.015	-0.086	0.055	0.917	0.166	0.159	1.181
유통서비스업	0.036	0.066	1.037	-0.027	0.055	0.973	0.171	0.190	1.187
개인서비스업	0.125	0.074*	1.133	0.098	0.059*	1.103	0.087	0.187	1.091
사회서비스업	0.001	0.071	1.001	-0.056	0.055	0.946	0.023	0.172	1.024
정규직	0.184	0.068***	1.202	0.080	0.053	1.084	0.113	0.142	1.120
상용직	0.043	0.071	1.044	0.032	0.055	1.033	0.125	0.149	1.133
고용보험 가입	0.122	0.047**	1.130	-0.057	0.042	0.944	0.169	0.116	1.134
-2LL	36,429			51,141			5,940		
관측치(우측절단)	3,291(21.9)			4,198(18.1)			895(43.0)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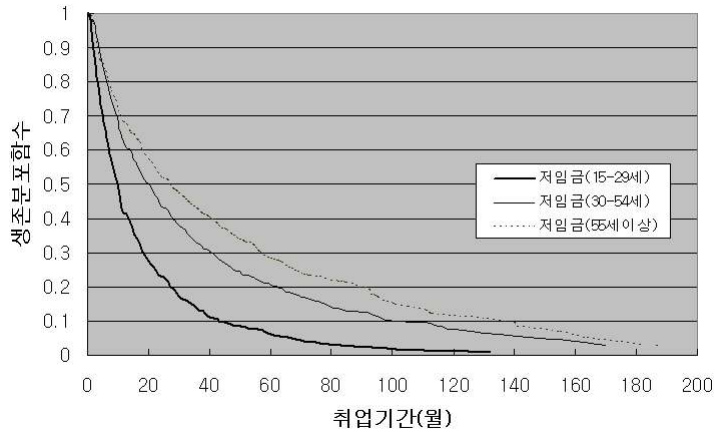
성별로는 청년층 및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예상대로 여성에 비해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청년층 및 중장년층 공히 중학교 이하 학력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낮다. 청년층에서는 전문대와 고졸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대학교 이상보다 높은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탈출확률이 가장 높다. 청년층의 경우 이전 일자리가 정규직일수록,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수록 미취업상태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크지만, 나머지 연령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산업더미와 직종더미 변수의 경우 연령층에 관계없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2.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에 대한 분석

여기서는 KM 생존함수 추정을 통해 연령계층별 근로자집단 사이에 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또한 Cox 해저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적특성 및 기업특성 요인들이 근로자의 취업 탈출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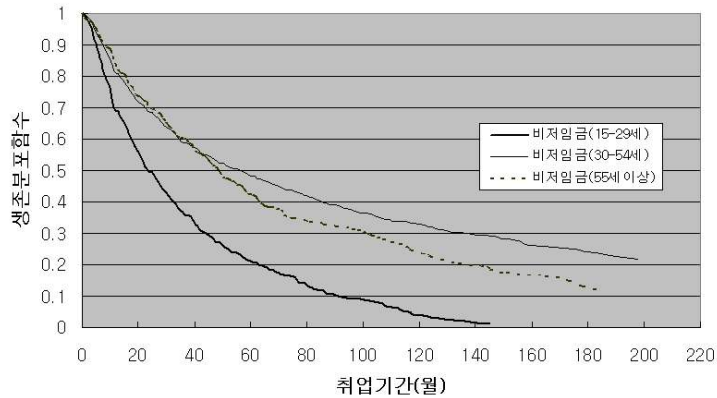
먼저, 저임금 여부별로 취업상태에 대한 KM 생존함수 추정을 통해 연령계층별로 취업 탈출확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그림 4-4, 그림 4-5). [그림 4-4]에서 보듯이, 현재 일자리가 저임금인 근로자 가운데 모든 취업기간에 걸쳐 15~29세의 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30~54세, 55세 이상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15~29세)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저임금 일자리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고령층(55세 이상)은 저임금에서 벗어나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다음으로 현재 일자리가 비저임금인 근로자에 대해 연령계층별로 취업 탈출확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그림 4-5), 저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취업기간에서 청년층의 취업 탈출확률이 가장 높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사이에는 비교가 다소 복잡한데, 취업기간이 40개월에 도달할 때까지는 두 연령계층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이후에는 저임금에서와는 반대로 고령층의 취업 탈출확률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그림 4-4]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저임금근로자



저임금	관측치		quartile estimate(월)			평균 (월)	equality test( $\chi^2$ )		
	전체	우측절단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15~29세	2,110	21.7	23	10	4	18.2	471.5 (<.0001)	414.7 (<.0001)	628.6 (<.0001)
30~54세	2,610	30.3	48	20	8	37.7			
55세 이상	1,040	33.1	68	27	9	48.3			

[그림 4-5] 연령계층별 취업 탈출확률 및 생존분포함수 비교: 비저임금근로자



비저임금	관측치		quartile estimate(월)			평균 (월)	equality test( $\chi^2$ )		
	전체	우측절단	75%	50%	25%		Log-Rank	Wilcoxon	-2Log(LR)
15~29세	3,217	35.37	52	24	10	37.0	614.6 (<.0001)	418.6 (<.0001)	863.1 (<.0001)
30~54세	5,492	48.2	178	56	17	85.2			
55세 이상	516	39.9	117	49	18	71.8			

현재 일자리의 저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층의 취업 탈출확률이 타 연령계층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것은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날 확률 또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풍부한데다 이직성향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저임금 고령층의 경우 취업기간이 긴 경우 일자리 이탈확률이 중장년층보다 높아지는데, 이는 정년퇴직에 따른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나 고용조정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5>는 연령계층별로 취업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Cox 해저드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의 하나인 저임금 여부가 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현재 일자리가 저임금인 경우 일자리를 이탈할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며, 그 효과의 크기 또한 강력한 편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저임금 여부가 취업이탈에 미치는 효과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고령층의 경우 양(+)의 값을 보여주나 유의하지 않다.

성별 더미의 추정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경우 남성의 취업 이탈확률이 여성보다 큰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남성의 취업 이탈확률이 여성보다 작다. 고령층에서는 남성 더미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기회, 특히 상향이동이 가능한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가운데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여 이직을 통해 상향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는 청년층에 비해 일자리 이행 횟수가 많아 현재 일자리에서의 적합성 및 정착성이 높을 가능성이 커서 여성에 비해 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학력더미의 경우도 성별 더미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추정치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며, 고령층은 유의하지 않다. 청년층의 경우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이탈확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반대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이탈확률이

<표 4-15> 연령계층별 취업 이탈확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Cox 해저드모형

	청년층(15~29세)			중장년층(30~54세)			고령층(55세 이상)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위험비
남성	0.134	0.043***	1.143	-0.116	0.042***	0.890	0.121	0.091	1.129
고등학교	0.152	0.036**	1.164	-0.070	0.039*	0.932	-0.169	0.096*	0.845
전문대학	0.112	0.070	1.118	-0.217	0.069***	0.805	-0.243	0.588	0.784
대학교 이상	0.262	0.070***	1.299	-0.317	0.061***	0.728	-0.224	0.172	0.799
저임금 고용	0.407	0.045***	1.503	0.253	0.043***	1.287	0.136	0.092	1.145
관리전문가	0.007	0.055	1.007	0.072	0.055	1.075	-0.495	0.178***	0.610
사무판매서비스직	0.042	0.057	1.043	0.010	0.045	1.010	-0.116	0.118	0.891
농광업	-0.829	0.339**	0.437	0.114	0.169	1.121	0.035	0.196	1.035
건설업	0.074	0.030	1.077	-0.315	0.036***	0.730	-0.305	0.154**	0.737
사업서비스업	-0.181	0.072**	0.835	-0.160	0.061***	0.852	0.124	0.127	1.132
유통서비스업	-0.119	0.053*	0.888	0.030	0.053	1.032	0.462	0.149***	1.587
개인서비스업	0.004	0.070	1.004	-0.037	0.056	0.934	0.218	0.143	1.243
사회서비스업	-0.283	0.057***	0.753	-0.283	0.064***	0.753	0.482	0.133***	1.620
정규직	-0.153	0.053**	0.858	-0.054	0.052	0.948	0.159	0.106	1.173
상용직	-0.540	0.055***	0.583	-0.404	0.052***	0.637	-0.396	0.108***	0.673
고용보험 가입	-0.401	0.046***	0.670	-0.441	0.041***	0.644	-0.475	0.096***	0.622
노동조합	-0.634	0.074***	0.530	-0.783	0.068***	0.457	-0.539	0.182***	0.584
-2LL	42,061			59,720			10,190		
관측치(우측절단)	4,291(33.9)			7,015(46.6)			1,328(39.0)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낮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이동을 통해 보다 양호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큰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고학력자일수록 해당 일자리에서의 적합성 및 정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더미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일자리 이탈확률을 낮추는 유의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및 노조더미 또한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현재 일자리에서의 이탈을 낮추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규직더미는 청년층의 경우만 일자리 이탈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나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한편, 직종과 산업더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진다. 다만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취업 이탈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사회서비스업에서는 취업 이탈확률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제5절 소 결

제4장에서는 연령계층별로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 발생하는 이행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로, 특히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의 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근로자일수록 비저임금으로의 상향이동을 통해 저임금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청년층 저임금근로자가 다음 일자리에서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은 중장년층과 고령층보다도 상당히 높다. 연도간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저임금 탈출확률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낮은 연령이나 숙련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에서 저임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청년기가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을 벗어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성격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층 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줄임으로써 원활한 일자리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를 거쳐 임금이 상승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청년층들이 여전히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공히 ‘저임금 → 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이전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이행에서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을 식별·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중장년층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으며, 청년층과 고령층 저임금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짧은(긴) 미취업기간에서는 청년층(고령층)이 보다 쉽게 미취업상태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Cox 해저드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미취업 직전의 일자리가 저임금이었던 근로자일수록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나, 저임금 여부가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 → 중장년층 → 고령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미취업 직전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라는 사실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도 저임금으로 귀결되는 소위 경로의존성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한다.

넷째,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청년층의 취업 탈출확률은 타 연령층보다 뚜렷이 높는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풍부한데다 이직성향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ox 해저드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여부가 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저임금일수록 일자리를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나, 미취업 탈출 분석과는 반대로 청년층의 경우 그 효과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동력 상태 사이의 이행과정에서 저임금과 비저임금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로자 인적특성별로, 그리고 기업 특성별로 일자리 이행의 과정 및 행태가 어떻게 다르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특히, 노동시장 이행에서 배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근로자계층의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에 대한 제2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30대 여부, 대졸 이상 여부와 같은 인적특성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고용에 있는지 등과 같은 일자리 특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 결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 저임금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한다. 둘째, 직업훈련을 받거나 대졸 이상일 경우 저임금 탈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근로자가 보유하는 인적자본 수준이 저임금 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저임금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저임금일수록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일단 실업상태로 떨어지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지원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저임금 탈출에 성공하려면 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임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인적자본 축적에서 중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저임금 탈출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나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와 함께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근로자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직업력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수준을 저임금과 비저임금으로 나눈 다음, 이어지는 일련의 일자리 이행과정과 이행확률, 취업·미취업상태 탈출확률 및 결정요인, 그리고 복수의 일자리를 포함하는 저임금 이행의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1998~2008) 동안 관찰되는 첫째 일자리에서 저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63.1%가 계속 저임금 또는 저소득 상태에 머무는 반면, 나머지 36.9%는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로 상향이동 한다. 첫째 및 둘째 일자리 모두 저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30.1%가 셋째 일자리에서 상향이동을 경험하여 저임금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저임금근로자가 일단 비저임금 상태로 상향이동을 경험하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며, 반대로 일단 비저임금에서 저임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후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에 머물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임금근로자에 적합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는 비저임금이지만 저임금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



은 한계근로자집단을 식별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및 숙련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저임금 상태로 빠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여성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 탈출 또는 비저임금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이 저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수단들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인적자본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저임금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처음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 저학력자, 생산직종, 비상용직, 제조업 종사자일수록 이직 이후 미취업상태를 거친 다음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넷째, 저임금 경험자,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경험자, 제조업 경험자일수록 미취업기간 동안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 탈출확률 측면에서는 저임금근로자, 청년층, 저학력층,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무노조 기업, 생산직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취업 이탈 위험이 높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취약집단별로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판별을 바탕으로 각각의 근로자집단이 직면하는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제거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집단마다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수단의 모색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연령계층별로 연도간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발생하는 이행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로, 특히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의 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근로자일수록 비저임금으로의 상향이동을 통해 저임금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청년층 저임금근로자가 다음 일자리에서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은 중장년층과 고령층보다도 상당히 높다. 연도간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도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현재 낮은 연령이나 숙련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에서 저임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청년기가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 저임금을 벗어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성격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청년층 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줄임으로써 원활한 일자리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를 거쳐 임금이 상승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청년층들이 여전히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공히 ‘저임금 → 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이전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이행에서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을 식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중장년층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으며, 청년층과 고령층 저임금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짧은(긴) 미취업기간에서는 청년층(고령층)이 보다 쉽게 미취업상태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헤저드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미취업 직전 일자리가 저임금이었던 근로자일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나, 저임금 여부가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

중장년층→고령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미취업 직전 일자리가 저임금이라는 사실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도 저임금으로 귀결되는 경로의존성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청년층의 취업 탈출확률은 타 연령층보다 뚜렷이 높는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풍부한데다 이직성향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저드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여부가 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저임금일수록 일자리를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나, 미취업 탈출 분석과는 반대로 청년층의 경우 그 효과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금재호·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 남성일·이화영(1999),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특성 분석: 외환위기 이전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1).
- 류기철·류재술(1999),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 5(2).
- 반정호(2006),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에 대한 고찰」, 『노동리뷰』 1(통권 제13호), 한국노동연구원.
- 석상훈(2008), 「저임금 근로의 동태적 분석: 상태의존성 검증」, 『산업경제연구』 21(2).
-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 윤진호·이시균(2009), 「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 『경제발전연구』 15(1).
- 이병희(2001),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4(1).
- \_\_\_\_\_(2002a),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 \_\_\_\_\_(2002b),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 변화」, 『노동정책연구』 2(4).
- \_\_\_\_\_(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 이병희·정재호(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전용석·김준영(2003),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문.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 \_\_\_\_\_(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과약」, 『한국사회복지학』 57 (2).
- 홍성우·양채열(1999),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광주지역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2 (1).
- 황덕순·전병유·고선(2004),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 외(2005),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05-04.
- Allison Paul D.(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 Andersson, Fredrik, Harry J. Holzer, and Julia I. Lane(2005), *Moving Up or Moving On - Who Advances in the Low-Wage Labor Marke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Asplund, Rita, Peter J. Sloane and Joannis Theodossiou(1998), *Low Pay and Earnings Mobility in Europe*, Edward Elgar.
- Bell, Daniel(1981), *The Social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이동만 역(1984),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구조』, 한울).
- Beck, U.(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ijwaard, G. E and G. Ridder(2005), "Correcting for Selective Compliance in a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 *Journal of Econometrics* 125, pp.77 ~ 111.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J. G. Richardson(2 ed.), pp.241 ~ 258. New York: Greenwood Press.

- Galbraith James K. and Maureen Berner(2001), *Inequality and Industrial Change: A Global 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age*, Cambridge(UK): Polity Press.
- Javier Ramos-Diaz(2006), “Low-wage Employment: ‘Stepping Stone’ or ‘Durable Trap,’ WP 5-20, Pompeu Fabra University-Barcelona-Spain.
- Lancaster, Tony(1990), *The Econometric Analysis of Transition Data*.
- Schmid, G.(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Discussion paper FS I 98-206.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Berlin.
- Schmid, G.(2002), “Employment Systems in Transition: Explaining Performance Differential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In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G. Schmid and B. Glazier(Eds.). pp.23~48. Cheltenham, UK: Edward Elgar.

◆ 執筆陣

- 윤윤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 발행연월일 | 2011년 6월 2일 인쇄  
2011년 6월 8일 발행
- 발행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1510-74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3775-5514 Fax (02) 3775-0697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6,000원

ISBN 978-89-7356-842-0